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기본구상 용역

- 최종보고서 -

2017. 7



제출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기본구상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7. 14.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한기문**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정우락**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희수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장

연구 보조원 **임지원** 경북대학교 사학과
 최재범 경북대학교 사학과

< 목 차 >

I.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기본 구상

1.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조성을 위한 철학적 기반	3
2. 왜 우리 시대에 다시 삼국유사를 주목하는가	4
3. 경상북도와 삼국유사의 상관성	5
4. 삼국유사의 한국적 확장성	7

II.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사업화의 여건과 전망

1. 삼국유사 기사의 소재지 분석	11
1)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분석	11
2) 삼국유사 관련 유적 분포 분석	15
2. 지역에서의 삼국유사 활용 실상	22
1) 지역 축제와 삼국유사	22
2) 기타 삼국유사 활용 사례 (공식지정 축제 외)	26
3. 지역 간 공동으로 연계 가능한 소재 구상	29
1) 통합의 길	29
2) 구도의 길	31
3) 호국의 길	37
4) 교류의 길	41
5) 일연의 길	44

III.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화 계획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전담기관 설립	59
1) 설립의 필요성	59
2) 설립 근거와 설립 방법	59
3) ‘(가칭)삼국유사 역사문화 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	64
2. 삼국유사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73
1) 삼국유사 관련 기초 연구	73
2) 삼국유사 역사 문화 콘텐츠 연구	74
3) 삼국유사 가치 공유 및 확산	76

3. 삼국유사 미래형 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78
1)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지정 방안	78
2)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조성 방안	80
3) 문화관광단지의 구성 방안	82
4) 문화관광단지의 운영 방안	87
5)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특화 방안	89
6)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활용 방안	93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약기구 구상	95
1) 삼국유사 이야기 현장 현황	95
2)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약기구 구성 방안	96
3)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방안	99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구축 방안	101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방안	104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약기구 사업 방안	107
1) 삼국유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107
2)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108
3) 삼국유사 공동 문화상품 개발 및 콘텐츠 개발 방안	109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공동 사업 방안	110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구체사업 예시	114
IV. 결론 및 기대효과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여건 분석	125
2. 기대효과	125

< 표 목차 >

<표 1> 삼국유사 기사 소재지	11
<표 2> 삼국유사와 관련된 유적지	15
<표 3> 삼국유사와 연관된 지역 축제	22
<표 4> 삼국유사 관련 기사·유적 소재지 분석	95
<표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화 계획 요약	119

< 지도 목차 >

<지도 1>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분포	21
<지도 2> 통합의 길 - ① 서동요 설화	49
<지도 3> 통합의 길 - ② 거득공 이야기	50
<지도 4> 구도의 길 - ① 진표대사	51
<지도 5> 구도의 길 - ② 의상대사	52
<지도 6> 구도의 길 - ③ 원효대사	53
<지도 7> 호국의 길	54
<지도 8> 교류의 길	55
<지도 9> 일연의 길	56

I .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기본 구상

1.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조성을 위한 철학적 기반
2. 왜 우리 시대에 다시 삼국유사를 주목하는가
3. 경상북도와 삼국유사의 상관성
4. 삼국유사의 한국적 확장성

I.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기본 구상

1.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조성을 위한 철학적 기반

-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시대 정신 창조
 -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민족의 고유정신 찾기
 - 세계와 소통하는 인류 보편가치의 발굴

- 이야기를 공유한 문화 공동체 만들기
 - 신이사관에 기반한 응혼한 민족 공동체 구축
 - 호모루덴스를 위한 즐거움의 문화적 향유

- 유불선의 회통적 세계관에 바탕한 화합 정신 제시
 -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유불선 이야기 주목
 - 한국인의 정신에 함유된 다중적 정체성 찾기

- 생태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류와 환경의 가치 존중
 - 계림 등에서 보이는 신성한 숲과 나무 이야기
 -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삼국유사적 제언

- 인간과 우주의 융합적 질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식
 -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나타내는 이야기 주목
 - 세계적 차원의 화해와 소통을 위한 한국형 브랜드의 창조

2. 왜 우리 시대에 다시 삼국유사를 주목하는가

-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저술한 민족담론의 핵심 역사서
 -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민족의 고유정신 찾기
 - 한민족사의 고유성, 창조성, 자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확보
 - 단군신화를 수록에 따른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제시

- 한국의 역사·지리 등 총체적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
 - 역사, 지리, 문학, 종교, 사상 등 한국문화의 원천이 담긴 보고
 -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의 원형 제시

- 세계와 소통하는 인류 보편가치 발굴을 위한 최적의 자료
 - 한국 중심의 이야기이지만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보편 가치 추구
 - 상하층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민중과 여성의 문제에 민감

- 한국 최고(最古)의 정형시가인 향가 14수 수록
 - 향가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가운데 최고로 꼽힘
 - <균여전>에 전하는 11수와 함께 한국문학의 시원을 알림

-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원소스 제공
 - 호모루덴스를 위한 놀이를 통한 문화적 향유 가능
 - 4차 산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풍부한 스토리 보유

3. 경상북도와 삼국유사의 상관성

□ 경상북도가 삼국유사 기사 관련 소재지의 압도적 우위

시도명	강 원	경 남	경 북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울 산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계
개소	6	11	62	2	9	1	1	3	3	4	6	2	110
%	5.5	10.0	56.4	1.8	8.2	0.9	0.9	2.7	2.7	3.6	5.5	1.8	100

- 삼국유사에 62개의 경북 이야기가 수록(56%),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삼국유사 이야기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활용에 용이

□ 일연의 고향 및 삼국유사 저술에 따른 활동 무대

- 경주 장산군에서 탄생, 포산보당암, 무주암, 묘문암, 인흥사 등에서 활동
- 인각사에서 2회의 구산문도회 개최 및 입적, 삼국유사 완성, 인각사에 비를 세움(1295)

□ 삼국유사 목판사업과의 연계성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조선중기본’, ‘조선초기본’ 2종을 차례로 복각(復刻)
- 삼국유사 목판사업을 계기로 한 전통문화의 활용
- 군위의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과의 연계성 용이
- 이미 개발되어 있는 문화사업과의 연계성 및 질서화
- 국내의 대표적인 신문화 관광단지로 육성

- 『신라사대계』 30책의 연구실적에 대한 수용과 대중적 활용
 -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이 5년에 걸쳐 편찬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삼국유사의 대중성 제고

4. 삼국유사의 한국적 확장성

-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글로벌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 삼국유사 학술연구 및 국제선양 추진
 - 삼국유사 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의 발의, 조율, 실행
 - 고전과 전통문화를 재창조한 신한류문화콘텐츠 개발

- 중부권 삼국유사 유적지 문화·관광 상품 공동 개발 및 활용
 - 우리 국토를 이야기로 연계할 수 있는 소통로 구축
 - 영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시도와의 문화적 연대

- 삼국유사 이야기를 통한 전국 연계망 구축
 - 이야기 전승에 루트 개발과 활용
 - 다양한 신문화콘텐츠에 따른 관광코스 개발 및 연계

-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ICT문화콘텐츠센터 조성 등
 -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삼국유사 역사문화 개발
 - 문화 공간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된 지역 관광상품 개발
 - 각 지역 문화유적 스토리텔링화(소재 발굴, 이야기꾼 양성 등)
 - 공연,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문화, 디지털, 멀티미디어) 개발
 -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의 문화 유전자 발굴 및 보급

Ⅱ.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사업화의 여건과 전망

1. 삼국유사 기사의 소재지 분석
 - 1)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분석
 - 2) 삼국유사 관련 유적 분포 분석

2. 지역에서의 삼국유사 활용 실상
 - 1) 지역 축제와 삼국유사
 - 2) 기타 삼국유사 활용 사례

3. 지역 간 공동으로 연계 가능한 소재 구상
 - 1) 통합의 길
 - 2) 구도의 길
 - 3) 호국의 길
 - 4) 교류의 길
 - 5) 일연의 길

II.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사업화의 여건과 전망

1. 삼국유사 기사의 소재지 분석

1)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분석

<표 1> 삼국유사 기사 소재지 (추정지 포함, 통계 요약은 5쪽 표 참조)

권역	소재지	이야기	출전
강원	강릉, 평창, 홍천	오대산에 나타난 5만 부처(상원사)	(권3)탐상4 대산오만진신 (명주 오대산 보질도태자전기의 내용 배경과 동일)
강원	양양	낙산의 유래	(권3)탐상4 낙산이대성 관음정취 조신
강원	영월	조신의 꿈	(권3)탐상4 낙산이대성 관음정취 조신
강원	정선	정암사-자장의 죽음	(권4)의해5 자장정률
강원	평창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자	(권3)탐상4 대산 월정사 오류성중
강원	평창	오대산 문수사의 석탑	(권3)탐상4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경남	김해	가야 건국	(권2)기이2 가락국기
경남	김해	허황후와 파사석탑	(권3)탐상4 금관성 파사석탑
경남	밀양	만어산의 부처 그림자	(권3)탐상4 어산불영
경남	산청	단속사에 은거한 신충	(권5)피은8 신충괘관
경남	양산	통도사 부처 사리	(권3)탐상4 전후소장사리
경남	양산	기장산 독룡과 혜통	(권5)신주6 혜통항룡
경남	양산	포천산의 5비구	(권5)피은8 포천산 5비구 경덕왕대
경남	진주 (경북영주)	여종 옥면의 극락왕생	(권5)감통7 옥면비 염불서승
경남	창원	남백월산의 이름 유래	(권3)탐상4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경남	합천	백엄사 석탑의 사리	(권3)탐상4 백엄사 석탑사리
경남	합천	해인사(화엄십찰)	(권4)의해5 의상전교
경북	경산	원효 출생	(권4)의해5 원효불기
경북	경주	금입택	(권1)기이1 진한
경북	경주	혁거세왕	(권1)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경북	경주	미추왕 호국설화	(권1)기이1 미추왕 죽엽군

권역	소재지	이야기	출전
경북	경주	김제상 처 망부석 설화	(권1)기이1 나물왕 김제상
경북	경주	서출지 오기일 설화	(권1)기이1 사금갑
경북	경주	비형랑과 鬼橋 설화	(권1)기이1 도화녀 비형랑
경북	경주	선덕여왕의 예지력	(권1)기이1 선덕왕 지기삼사
경북	경주	김춘추와 문명황후	(권1)기이1 태종춘추공
경북	경주	사천왕사 창건	(권2)기이2 문호왕 법민
경북	경주	감은사와 만파식적	(권2)기이2 만파식적
경북	경주	관문성 축조	(권2)기이2 효성왕
경북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	(권2)기이2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
경북	경주	황룡사 사미승과 여의주	(권2)기이2 원성대왕
경북	경주	도림사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권2)기이2 경문대왕
경북	경주	이차돈 순교	(권3)흥법3 원종흥법 염촉멸신
경북	경주	흥륜사 성인 봉안	(권3)흥법3 동경흥륜사 금당십성
경북	경주	전불칠처가람	(권3)탑상4 가섭불 연좌석
경북	경주	황룡사의 장륙불상	(권3)탑상4 황룡사장륙
경북	경주	황룡사의 구층탑	(권3)탑상4 황룡사 구층탑
경북	경주	황룡사종과 분황사 약사여래상, 봉덕사종	(권3)탑상4 황룡사종 분황사약사 봉덕사종
경북	경주	영묘사의 장륙상	(권3)탑상4 영묘사장륙
경북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	(권3)탑상4 생의사 석미륵
경북	경주	흥륜사의 보현보살 벽화	(권3)탑상4 흥륜사벽화보현
경북	경주	중생사와 관음보살 현신	(권3)탑상4 삼소관음 중생사
경북	경주	부례랑의 생환 설화	(권3)탑상4 백률사
경북	경주	눈먼 아이를 눈뜨게 한 영험	(권3)탑상4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
경북	경주	감산사 미륵상 아미타상	(권3)탑상4 남월산
경북	경주	천룡사	(권3)탑상4 천룡사
경북	경주	무장사 미타전	(권3)탑상4 무장사 미타전
경북	경주	석장사	(권4)의해5 양지사석
경북	경주	원효와 요석공주, 설총	(권4)의해5 원효불기
경북	경주	사복과 원효	(권4)의해5 사복불언

권역	소재지	이야기	출전
경북	경주	대현과 법해의 영험	(권4)의해5 현유가 해화엄
경북	경주	금곡사와 밀본법사	(권5)신주6 밀본최사
경북	경주	금광사와 명랑, 문두루비법	(권5)신주6 명랑신인
경북	경주	선도산 산신을 위한 법회	(권5)감통7 선도성모 수희불사
경북	경주	광덕과 엄장의 구도	(권5)감통7 광덕엄장
경북	경주	문수보살을 만난 경흥	(권5)감통7 경흥우성
경북	경주	비파암의 진신석가	(권5)감통7 진신수공
경북	경주	사천왕사의 월명사	(권5)감통7 월명사 도솔가
경북	경주	망덕사 승려 선율의 환생기	(권5)감통7 선율환생
경북	경주	김현과 호랑이의 사랑	(권5)감통7 김현감호
경북	경주	추위에 떠는 여인을 구한 정수사	(권5)감통7 정수사 구빙녀
경북	경주	염불사	(권5)피은8 염불사
경북	경주	김대성의 효도	(권5)효선9 대성효이세부모
경북	경주	부모 봉양 위해 아이 묻은 손순	(권5)효선9 손순매아
경북	경주	효녀 지은 이야기	(권5)효선9 빈녀양모
경북	구미	불교 전래	(권3)흥법3 아도기라
경북	김천	승전과 갈항사의 석촉루	(권4)의해5 승전촉루
경북	문경	견훤출생	(권2)기이2 후백제견훤
경북	문경	사불산 사방여래	(권3)탑상4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경북	안동	학가산 골암사	(권4)의해5 의상전교
경북	영주	의상의 부석사 창건	(권4)의해5 의상전교
경북	영주	진정의 효와 추동기(비로사 추정)	(권5)효선9 진정사효선쌍미
경북	영천	골화천의 호국신	(권1)기이1 김유신
경북	울릉	신라의 울릉도 정벌	(권1)기이1 지철로왕
경북	청도	이서국 위치	(권1)기이1 이서국
경북	청도	원광과 세속오계	(권4)의해5 원광서학
경북	청도	보양과 이무기	(권4)의해5 보양이목
경북	포항	연오랑 세오녀	(권1)기이1 연오랑 세오녀

권역	소재지	이야기	출전
경북	포항	오어사 유래	(권4)의해5 이해동진
대구		동화사 심지	(권4)의해5 심지계조
대구		포산의 두 성인	(권5)피은8 포산이성
부산		범어사(화엄십찰)	(권4)의해5 의상전교
서울		전물 화랑 추모(서울 창의문 밖 壯義寺)	(권1)기이1 장춘랑 파랑
울산		망해사-처용 설화	(권2)기이2 처용랑 망해사
울산		영취산의 낭지	(권5)피은8 낭지승운 보현수
울산		문수보살을 만난 연희	(권5)피은8 연희도명문수점
전남	구례	화엄사(화엄십찰)	(권4)의해5 의상전교
전남	완도	장보고와 염장	(권2)기이2 신무대왕 염장 궁파
전남	전주, 광주	후백제 건설	(권2)기이2 후백제건환
전북	김제	진표의 출생과 출가(금산사)	(권4)의해5 진표전간
전북	부안	영산사-진표의 수행	(권4)의해5 진표전간
전북	익산	서동설화	(권2)기이2 무왕
전북	익산	미륵사	(권2)기이2 무왕
충남	공주	다리를 베어 부모를 봉양한 향득	(권5)효선9 향득사지할공친
충남	논산	항산벌 전투와 계백	(권1)기이1 태종춘추공
충남	부여	백제 멸망과 의자왕	(권1)기이1 태종춘추공
충남	부여	정사암, 용암, 돌석, 대왕포	(권2)기이2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
충남	부여	왕흥사	(권3)흥법3 법왕금살
충남	예산	혜현의 구도행	(권5)피은8 혜현구정
충북	단양	죽지랑 탄생	(권2)기이2 효소왕대 죽지랑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권4)의해5 관동 풍악 발연수석기

- 기사的主 무대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
- 상당수가 경북에 집중. 특히 62건 가운데 47건이 경주를 배경으로 함.

2) 삼국유사 관련 유적 분포 분석

시도명	강 원	경 남	경 북	대 구	대 전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계
개소	9	14	71	4	1	1	5	1	1	6	13	2	128
%	7.0	10.9	55.5	3.1	0.8	0.8	3.9	0.8	0.8	4.7	10.2	1.6	100

- 중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출, 그 밖에 소재가 비교적 명확한 유적 포함.
- 경북지역에 71곳의 관련 유적이 소재(55%)

<표 2> 삼국유사와 관련된 유적지(추정지 포함)

번호	유적지 명칭(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출전
1	경주 표암봉(표암봉) ¹⁾	『삼국유사』권1, 기이, 신라 시조 혁거세왕
2	경주 나정(나정)	
3	경주 알영정(사랑리 알영정)	
4	경주 창림사지(남산 서쪽 기슭)	
5	경주 오릉(사릉蛇陵)	
6	경주 토함산(토함산)	
7	경주 월성(초승달처럼 생긴 산봉우리)	『삼국유사』권1, 기이, 제4 탈해왕
8	경주 傳탈해왕릉(동악東岳)	
9	경주 계림(시림始林)	『삼국유사』권1, 기이, 김알지 탈해왕대
10	포항 영일만(영일현 또는 도기야都祈野)	
11	경주 미추왕릉(죽현릉)	『삼국유사』권1, 기이, 미추왕 죽엽군
12	경주 망덕사지(망덕사)	
13	경주 박재상 유적(치솔령)	『삼국유사』권1, 기이, 나물왕 김재상
14	(서출지) ²⁾	
15	경주 황룡사지(황룡사)	『삼국유사』권1, 기이, 천사옥대

번호	유적지 명칭(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출전
16	(영묘사) ³⁾	『삼국유사』권1, 기이, 선덕왕 지기삼사
17	(여근곡) ⁴⁾	
18	경주 선덕여왕릉(낭산狼山)	
19	경주 사천왕사지(사천왕사)	
20	경주 첨성대(첨성대)	
21	경주 선도산(서악西岳)	『삼국유사』권1, 기이, 태종 춘추공
22	경주 태종무열왕릉과 비(애공사 동쪽)	
23	(탄현) ⁵⁾	
24	서천 기벌포(기벌포) ⁶⁾	
25	(오회사) ⁷⁾	
26	부여 왕흥사지(왕흥사)	
27	(덕물도) ⁸⁾	
28	논산 계백장군유적전승지(황산)	
29	부여 낙화암(타사암)	
30	(장의사壯義寺) ⁹⁾	『삼국유사』권1, 기이, 장춘랑 파랑
31	경주 인룡사지(인룡사)	『삼국유사』권2, 기이, 문무왕 법민
32	경주 부산성(부산성富山城)	
33	(성부산) ¹⁰⁾	
34	경주 이견대(이견대利見臺)	『삼국유사』권2, 기이, 만파식적
35	경주 감은사지(감은사)	
34	경주 기림사(기림사)	
35	(죽지령) ¹¹⁾	『삼국유사』권2, 기이, 효소왕대 죽지랑
36	(봉덕사) ¹²⁾	『삼국유사』권2, 기이, 성덕왕
37	경주 남산 삼화령(삼화령 미륵세존)	『삼국유사』권2, 기이,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38	(봉성사奉聖寺) ¹³⁾	『삼국유사』권2, 기이, 혜공왕
39	강릉 傳명주군왕릉	『삼국유사』권2, 기이, 원성대왕
40	경주 분황사 석정 ¹⁴⁾	『삼국유사』권2, 기이, 원성대왕
41	완도 청해진(청해진)	『삼국유사』권2, 기이, 신무대왕·염장·궁파
42	울주 망해사지(망해사 또는 신방사)	『삼국유사』권2, 기이,

번호	유적지 명칭(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출전
		처용랑 망해사
43	경주 포석정(포석정)	『삼국유사』권2, 기이, 김부대왕
44	경주 월지와 동궁(임해전)	『삼국유사』권2, 기이, 남부여·전백제·북부여
45	부여 호암사지(호암사)	
46	부여 취령봉 천정대(정사암) ¹⁵⁾	
47	부여 조룡대(용암)	
48	부여 자온대(돌석)	
49	부여 궁남지(남지)	『삼국유사』권2, 기이, 무왕
50	익산 사자암(사자사)	
51	익산 미륵사지(미륵사)	
52	문경 금하굴	『삼국유사』권2, 기이, 후백제 견훤
53	(근품성) ¹⁶⁾	
54	대구 팔공산(공산)	
55	(대목성) ¹⁷⁾	
56	논산 傳견훤왕릉	
57	김해 구지봉(북구지北龜旨)	『삼국유사』권2, 기이, 가락국기
58	김해 수로왕비릉(구지봉 북쪽 언덕)	
59	김해 수로왕릉(수릉왕릉)	
60	김해 장유암(장유사)	
61	김해 傳구형왕릉	
62	구미 傳모례가정(일선군)	『삼국유사』권3, 흥법, 순도조려
63	경주 흥륜사지(천경림天鏡林)	『삼국유사』권3, 흥법, 아도기라
64	경주 황룡사지(용궁 남쪽)	
65	경주 분황사(용궁 북쪽)	
66	경주 담암사지(서청전婿請田) ¹⁸⁾	
67	경주 남간사지(남간사)	『삼국유사』권3, 흥법, 원종흥법 염축멸신
68	경주 백률사(자추사)	
69	공주 대통사지(대통사)	
70	완주 경복사지(경복사)	『삼국유사』권3, 흥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71	김해 파사석탑(파사석탑)	『삼국유사』권3, 탑상, 금관성파사석탑

번호	유적지 명칭(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출전
72	문경 대승사(대승사) ¹⁹⁾	『삼국유사』권3, 탑상, 사불산·굴불산·만불산
73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굴석사)	
74	경주 생의사지(생의사)	『삼국유사』권3, 탑상, 생의사석미륵
75	양양 낙산사(낙산사)	『삼국유사』권3, 탑상,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76	강릉 굴산사지(굴산사)	
77	영월 흥교사지(세달사)	
78	밀양 만어사(만어산)	『삼국유사』권3, 탑상, 어산불영
79	영월 태화산(세규사)	『삼국유사』권3, 탑상, 대산오만진신
80	정선 정암사(정암사)	
81	평창 수항리사지(수다사)	
82	평창 월정사(월정사)	『삼국유사』권3, 탑상, 대산월정사오류성중
83	경주 감산사(남월산)	『삼국유사』권3, 탑상, 남월산
84	경주 천룡사(천룡사)	『삼국유사』권3, 탑상, 천룡사
85	경주 무장사지(무장사)	『삼국유사』권3, 탑상, 무장사의 미타전
86	합천 백엄사지(백엄사)	『삼국유사』권3, 탑상, 백엄사 석탑 사리
87	(영취사) ²⁰⁾	『삼국유사』권3, 탑상, 영취사
88	(유덕사) ²¹⁾	『삼국유사』권3, 탑상, 유덕사
89	경주 금곡사지 원광법사 승탑(금곡사)	『삼국유사』권4, 의해, 원광서학
90	청도 운문사(운문사 선원)	『삼국유사』권4, 의해, 보양이목
91	(운문선사) ²²⁾	
92	(봉성사奉聖寺) ²³⁾	
93	(석장사) ²⁴⁾	『삼국유사』권4, 의해, 양지사석
94	포항 오어사(항사사, 오어사)	『삼국유사』권4, 의해, 이해동진
95	양산 통도사(통도사)	『삼국유사』권4, 의해, 자장정률
96	(압유사鴨遊寺) ²⁵⁾	『삼국유사』권4, 의해, 자장정률
97	(초개初開) ²⁶⁾	『삼국유사』권4, 의해, 원효불기
98	경산 제석사(사라사) ²⁷⁾	
99	영주 부석사(부석사)	『삼국유사』권4, 의해, 의상전교
100	합천 해인사(해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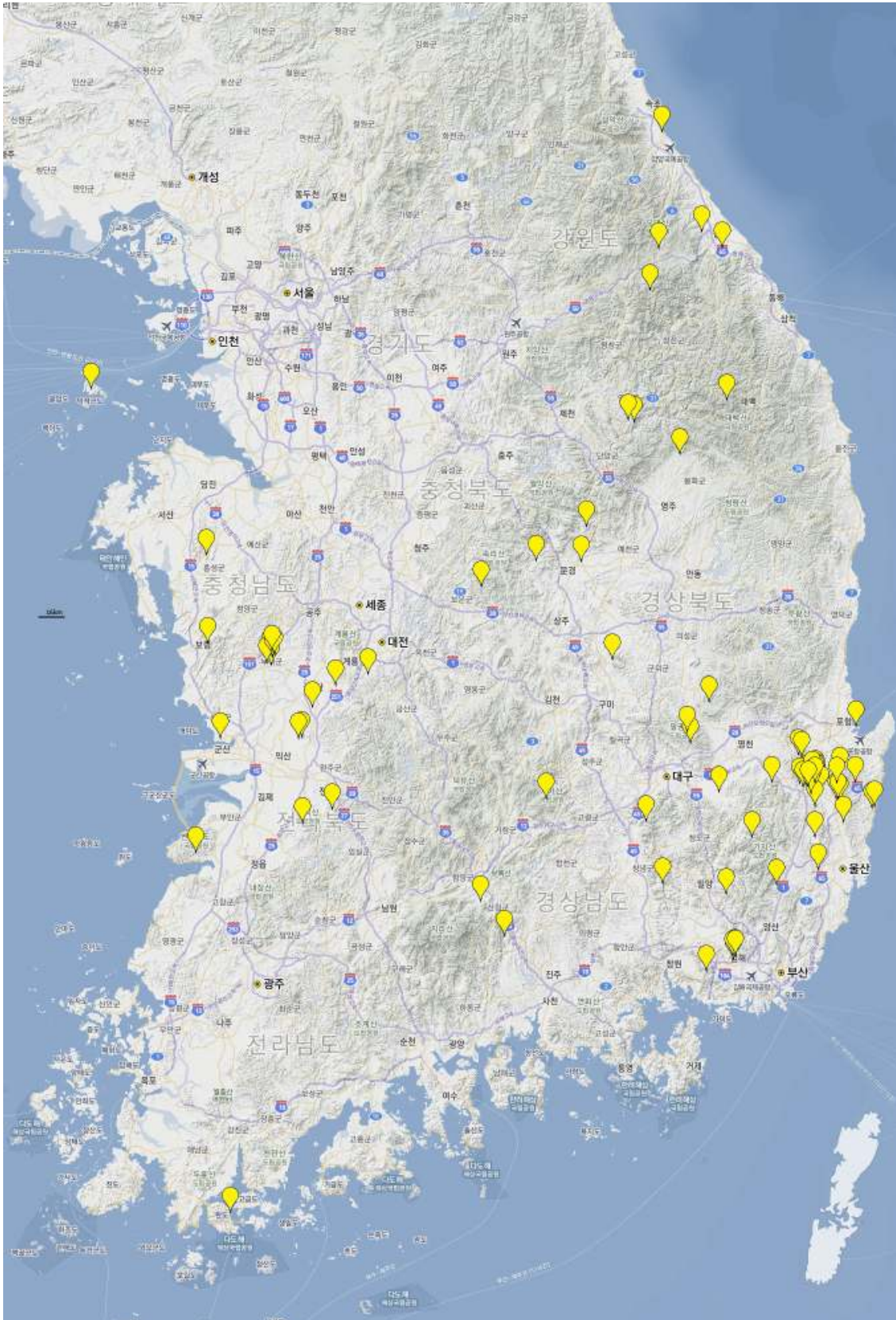
번호	유적지 명칭(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출전
101	경주 불국사(불국사)	
102	(고선사) ²⁸⁾	『삼국유사』권4, 의해, 사복불언
103	김제 금산사(금산사)	
104	변산 능가산(영산사)	『삼국유사』권4, 의해, 진표전간
105	(발연사鉢淵寺) ²⁹⁾	
106	(불사의방不思議房) ³⁰⁾	『삼국유사』권4, 의해,
107	보은 법주사(길상사) ³¹⁾	관동풍악발연수석기
108	김해 갈항사지(갈항사)	『삼국유사』권4, 의해, 승전축루
109	대구 동화사(동화사)	『삼국유사』권4, 의해, 심지계조
110	경주 남산 용장사지(용장사)	『삼국유사』권4, 의해, 현유가해화엄
111	(금곡사金谷寺) ³²⁾	『삼국유사』권5, 신주, 밀본최사
112	(왕망사王望寺) ³³⁾	『삼국유사』권5, 신주, 혜통항룡
113	경주 원원사지(원원사)	『삼국유사』권5, 신주, 명랑신인
114	경주 삼랑사지(삼랑사) ³⁴⁾	
115	경주 남항사지(남항사) ³⁵⁾	『삼국유사』권5, 감통, 경흥우성
116	(문수사文殊寺) ³⁶⁾	
117	(석가사釋迦寺) ³⁷⁾	『삼국유사』권5, 감통, 진신수공
118	경주 불무사(불무사)	
119	경주 호원사지(호원사)	『삼국유사』권5, 감통, 김현감호
120	(반고사磻高寺) ³⁸⁾	『삼국유사』권5, 피은, 낭지승운
121	(혁목사赫木寺) ³⁹⁾	보현수
122	예산 수덕사(수덕사)	『삼국유사』권5, 피은, 혜현구정
123	산청 단속사지(단속사)	『삼국유사』권5, 피은, 신충괘관
124	대구 비슬산 도성암(도성암)	『삼국유사』권5, 피은, 포산이성
125	군위 인각사	『삼국유사』 저술지 추정

- 1) 분황사 쪽에서 포항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로 가는 길가인 경주시 동천동의 금강산 자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이다. 적어도 이씨 문중에서는 비석으로 표시한 그곳을 표암봉이라고 믿는다. 그 오른쪽 아래에 석탈해 왕릉이 있다.
- 2) 경주 양기못으로 비정하고 있다.
- 3) 현재 흥륜사가 자리하고 있다.
- 4) 경주시 건척읍의 부산(富山) 자락에 있다.
- 5)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의 경계에 위치한 식장산(食藏山)에 있는 고개이다.
- 6) 금강 하구로 추정하고 있다.

- 유적 분류는 삼국유사 수록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
- 추정지 관련 내용은 주석 참조.

-
- 7)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1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백제시대의 사찰이다.
 - 8)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덕적도로 추정하고 있다.
 - 9) 서울 창의문(彰義門) 밖에 옛터가 있다.
 - 10)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에 위치한 산으로 성손호산(星損乎山)이라고도 한다.
 - 11) 단양군 죽령으로 추정하고 있다.
 - 12) 경상북도 경주시 북천(北川)의 옆에 있었던 사찰.
 - 13) 경상북도 경주시 동성동에 있었던 사찰.
 - 14) ‘호국룡변어정’이라고도 한다.
 - 15) 이곳의 한 바위가 정사암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6) 지금의 문경군 산양면 일대.
 - 17)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 지방
 - 18) 담업사라고도 한다.
 - 19) 사불산 꼭대기 근처에 큰 바위가 있는데, 동쪽면의 불상만 희미하게 남아 있다.
 - 20) 경상남도 양산군 영취산(靈鷲山)에 있었던 사찰.
 - 21) 경상북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2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산(雲門山)에 있었던 사찰, 『삼국사기』에는 가실사(加悉寺)로 되어 있으며, 가서사(加西寺, 嘉栖寺)·고시사(古尸寺)·갑사(岬寺) 등으로도 불렸다.
 - 23)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었던 사찰이다. 신라 때 창건되었고, 신라 말 보양이 귀국한 뒤 그곳에 주석하였다. 그때 보양의 도움으로 고려 태조는 견성에 머물고 있던 적도들을 물리쳤다. 그 뒤 보양과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봉성사라고 하였다.
 - 24)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석장(錫丈) 마을에 있었던 사찰.
 - 25) 경상남도 울산에 있었던 사찰. 창건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26)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던 사찰이다.
 - 27) 사라사의 위치는 지금의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제석사로 추정하고 있다.
 - 28)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에 있었던 절이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원효가 머물렀던 절로서, 무열왕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 29) 강원도 간성군 신북면 용계리 금강산 미륵봉에 있던 사찰이다.
 - 3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에 있던 사찰이다.
 - 31) 진표, 창건연기 설화, 미륵불, 지장보살
 - 32) 경주시 강서면 두류리 삼기산에 있던 절로, 현재 법당 앞에 삼층석탑이 원광법사의 부도로 전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 3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정의 절터에서 ‘왕망사’라는 글귀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자리를 왕망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34) 삼랑이라는 이름은 세 사람의 화랑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짐작되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그 유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현재는 보물 제127호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 있을 뿐이다.
 - 35) 기록이 적어서 치폐연혁을 잘 알 수가 없으며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석불입상 1구가 남아 있다.
 - 36) 알려지거나 확인된 기록이 없어서 대략적인 내용조차도 알 수 없다. 다만 본문으로 보아 경주 남산에 있었던 절로만 생각될 뿐이다.
 - 37)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서쪽 비파곡에 있던 사찰.
 - 38)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영취산에 서북쪽에 있던 사찰이다.
 - 39)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영축산에 있던 사찰로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지도 1>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분포



2. 지역에서의 삼국유사 활용 실상

1) 지역 축제와 삼국유사

□ 전국 축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93	71	30	23	22	10	9	10	2	83	61	37	90	47	44	81	44	29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 http://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 대다수의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나 지역의 유명 인물을 활용한 문화 축제.
- 역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례는 조선 혹은 근대가 다수를 차지.
- 삼국유사와 연관지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 내용 참조.

□ 삼국유사와 연관된 지역 축제 분석

<표 3> 삼국유사와 연관된 지역 축제 현황

지역	축제명	주요 내용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제	왕의 행렬, 한성백제인물열전, 제천의식 등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체험마을 등
울산	시자체 처용문화제	처용무 등 처용 콘텐츠공연 (9종 15개 프로그램)
충남	공주시 공산성 백제 어울마당	백제기악공연, 인형극등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제	웅진성퍼레이드, 체험마당, 무대공연 등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 연꽃축제	설화 주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제	백제역사문화행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운영
전북	익산시 익산서동축제	서동요 경연대회, 서동선화혼례식 (금혼식 연계), 무왕행차퍼레이드, 서동선발대회 등

지역		축제명	주요 내용
경북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문화축제	연오랑 세오녀 신화재연, 퍼레이드, 시민노래자랑 등
경북	경주시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주제 전시-한국의 종, 체험부스 운영 등
경북	경주시	신라문화제	셔블 향연의밤, 화랑씨름대회, 풍물경연대회, 신라 설화 창작극 등
경북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대가야 역사를 테마로 한 26개분야 50개 프로그램, 창작뮤지컬, 노래자랑 등
경남	김해시	가야문화축제	수로왕 행차, 개폐막식, 불꽃놀이 등 공식행사 외 6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
경남	함안군	함안군 아라제	함안 낙화놀이 및 함안낙화 연날리기, 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삼국유사를 전면에 내세운 문화 축제는 전무한 실정.
-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삼국유사와 지역을 연결하려는 관심도 낮음.

○ 삼국유사와 연관된 지역축제 사진 자료



한성백제문화제(서울 송파구) - 역사문화 거리행렬



처용문화제(울산광역시) - 처용마당



익산서동축제(전북 익산) - 서동, 선화 혼례식



연오랑 세오녀 문화축제(경북 포항) - 연오랑 세오녀 신화 재연



신라문화제(경북 경주) - 길놀이 퍼레이드



가야문화축제(경남 김해) - 허황후 맞이 공연

2) 기타 삼국유사 활용 사례 (공식지정 축제 외)

① 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 - 경북 경주

- 『삼국유사』에서 호국의 전설을 간직한 ‘만파식적’ 설화 차용
- 세계 평화 염원, 화합 강조
- 세계피리명인전, 나라별 악기 전시, 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② 삼국유사 골든벨 - 경북 군위

- 우리 역사의 기원을 밝힌 삼국유사를 바르게 알자는 취지로 시작
-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
- 전국 각지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청소년 참여

③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과정 - 경북 군위

- 지역민들의 지역 문화 인식 및 군위 정체성 선양
- 삼국유사 관련 전문가 육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문화 가치 재인식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④ 인문학 강좌 - 대전

- 인문고전 명사초청 강연회 (2014. 07. 08) : 부산대학교 정출현 교수, 강연주제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엮어 읽기, 김부식과 일연은 왜?”
- 한밭도서관, 삼국유사 유적지 ‘인문학 탐방’ (2012. 10. 24) : ‘삼국유사를 걷는 즐거움’의 저자인 이재호 기행작가가 동행해 문화유적을 소개

⑤ 국악뮤지컬 <서동의 노래> 특별공연(2013. 09. 29) - 충남 공주

- 서동의 노래는 『삼국유사』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서동요)’를 창극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뮤지컬

⑥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 ‘해과랑길’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출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의 688km를 선형으로 잇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 구상
- 탐방로상에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자연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 경주~포항을 잇는 23Km의 구간이 화랑과 삼국유사의 테마로 기획 (홈페이지 <http://haeparang.org/>)

⑦ 허황후 신행길 축제 - 김해, 부산

- 국적을 넘어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을 이룩한 수로왕과 허황후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
- 부산과 김해가 공동 주최하여 양자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교통망을 활용해 관광분야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함
- 기존의 가야문화 관광자원의 공동활용, 관광객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 협력 도모
- 가야, 인도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부산-김해의 인적, 물적 교류와 더불어 한-인도간 경제 문화적 비즈니스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⑧ 삼국유사 목판 사업 - 경상북도

-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삼국유사의 선분을 저본으로 삼아 서지적 의미의 원형을 상징하는 목판을 제작 (홈페이지 <http://samgukyusa-woodblocks.kr/>)
- 현존하는 『삼국유사』 목판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 연구를 진행하여 대표적인 판본을 검증하고, 『삼국유사』와 관련된 기왕의 연구업적을 기록문화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그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판각 재현 과정에 대한 기록물 집성을 통한 전통 기록문화유산의 의미 확산 등의 의의를 가지며, 아울러 전통기록유산으로서 목판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각

3. 지역 간 공동으로 연계 가능한 소재 구상

※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사례들을 뽑아 정리.

1) 통합의 길

□ 지역간의 소통과 갈등 해소에 시사점을 던져 줄 만한 이야기들을 선정.

① 서동요 설화 (기이2 무왕) : 백제 서동(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 내용 소개

제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못의 용(龍)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薯童)이라고 하였다.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生業)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공주 선화(善花)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니 그것은 이러하다.

“선화공주님은 / 남몰래 사귀어 두고 /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에 가득 퍼져서 대궐 안에까지 들리자 백관(百官)들이 임금에게 극력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했다. 장차 떠나려 하는 데 왕후(王后)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노자로 쓰게 했다.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서동이 도중에 나와 절하면서 장차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믿고 좋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가면서 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영험을 믿었다.

함께 백제에 이르러 모후(母后)가 준 금을 내어 장차 살아 나갈 계획을 의논하니 서동이 크게 웃고 말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공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황금이니 백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동이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흠처럼 많이 쌓아 두었소”라고 하였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 금이 있는 곳을 아시면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좋다.”고 말하였다. 이에 금을 모아 언덕과 같이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서 금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神通한 힘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이리로 가져 오시오”라고 하였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법사는神通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어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서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神通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彌勒) 삼회(三會)를 법상(法像)으로 하여 전(殿)과 탑(塔)과 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工人)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

— 부여 남지(부여 궁남지) → 서라벌(경주) → 용화산 사자사(師子寺) → 미륵사

② 거득공 이야기 (기이2 문호왕 법민) : 신라 통일 직후 나라 안을 두루 순행하며 민심을 살핀 재상.

※ 내용 소개

왕이 하루는 서제(庶弟) 거득공(車得公)을 불러 이르기를, “네가 재상(冢宰)이 되어 백관을 고루 다스리고 사해(四海)를 태평하게 하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만약 소신으로 재상을 삼고자 하신다면, 원컨대 신은 국내를 가만히 다니면서 민간 부역의 괴롭고 편안함과 조세의 가볍고 무거운 것과 관리의 청렴하고 탐오함을 살펴본 뒤에 취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말을 좇았다.

공은 치의(緇衣)를 입고 비파를 든 거사(居士)의 차림으로 서울(京師)을 떠났다. 아슬라주(阿瑟羅州), 우수주(牛首州), 북원경(北原京)을 거쳐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러 마을을 순행하니, 주의 관리 안길(安吉)이 그를 이인(異人)으로 보고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정성껏 대접하였다. 밤이 되자 안길이 처첩 세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에 거사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종신토록 해로 하겠다”고 하였다. 두 처가 말하기를,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탄 사람과 함께 잔 단 말이요”라고 하였다. 그 중의 한 처가 말하기를, “공이 만약 종신토록 같이 살

기를 허락한다면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쫓았다. 이튿날 아침 거사가 작별하고 떠나려 할 때 말하기를, “나는 서울 사람으로 내 집은 황룡(黃龍)과 황성(皇聖)의 두 절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오(端午)이니, 주인이 만약 서울에 오면 내 집을 찾아주면 좋겠소”라고 하고,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外州)의 향리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其人)이다. 안길이가 마침 상수(上守)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오게 되자, 두 절 사이에 있는 단오거사의 집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안길이가 오랫동안 길가에 있었는데, 한 늙은이가 지나다가 그의 말을 듣고 한참동안이나 생각하다 말가리를, “두 절 사이에 있는 집은 대궐(大內)이고, 단오란 바로 거득영공(車得令公)으로, 외군(外郡)에 가만히 다닐 때 그대와 무슨 사연과 약속이 있었던 것 같소”라고 하였다. 안길이가 그 사실을 말하자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는 궁성의 서쪽 귀정문(歸正門)으로 가서 출입하는 궁녀를 기다렸다가 사실을 말하시오”라고 하였다.

안길이가 그 말을 쫓아서 무진주의 안길이가 문 밖에 왔다고 하였다. 거득공이 달려 나와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공의 부인을 불러내어 안길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이 50가지나 되었다.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성부산(星浮山) 아래의 지역을 무진주 상수리의 소목전(燒木田)으로 삼아 벌채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경향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였다. 산 아래에 밭 30묘가 있어 종자 세 섬을 뿌리는데, 이 밭이 풍작이면 무진주도 풍작이 되고, 흉년이면 무진주도 역시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 경주 → 아슬라주(강릉) → 우수주(춘천) → 복원경(충주)
→ 무진주(광주) → 경주(월성)

2) 구도의 길

□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정.

① 진표대사 (의해5 진표전간, 관동발연수석기)

※ 내용 소개

진표전간(眞表傳簡)

석 진표(釋眞表)는 완산주(完山州) 만경현(萬頃縣)사람이다. 아버지는 진내말(眞乃末),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으로 성은 정씨(井氏)이다.

나이 열두 살에 이르러 금산사(金山寺) 송제법사(崇濟法師)의 강석하에 들어가 중이 되어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 스승이 일찍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당

나라에 들어가 선도삼장(善道三藏)에게서 수업을 받았고 연후에 오대산으로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신에 감응하여 오계(五戒)를 받았다”고 하였다. 진표가 “삼가 수행하기를 어찌하여야 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승제법사가 말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곧 1년을 넘기지 않는다.” 진표가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名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선계산(仙溪山) 불사의암(不思議菴)에 석장을 머무르고 삼업을 갖추어 수련하여서 망신참(亡身懺)으로 계를 얻고자하였다. 처음에 일곱 밤을 기약하고 오체를 돌에 부딪혀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피를 바위에 흘뿌렸으나 성응(聖應)이 없는 듯하여 몸을 버릴 것을 결심하고 다시 7일을 기약하였다. 14일이 끝나자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보고 정계(淨戒)를 받았다. 이때가 곧 개원(開元) 28년 경진(庚辰) 3월 15일 진시였고 이때 나이가 23세였다.

그러나 뜻이 미륵보살에게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치지 않고 이에 영산사(靈山寺)로 옮겨 또한 처음처럼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占察經)》 2권과 증과(證果) 간자(簡子) 189개를 주고 일러 말하기를 “이 중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妙戒)를 이르고, 제9간자는 구족계(具足戒)를 더 얻음을 이른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沈檀木)으로 만든 것으로 모든 번뇌를 이룬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세상에 법을 전하여 사람을 구하는 뗏목으로 삼아라”라고 하였다.

진표는 이미 미륵보살의 기별을 받자 금산사에 와서 살았다. 매해 개단(開壇)하고 법시(法施)를 널리 베풀었는데 단석(壇席)의 정성스럽고 엄격함이 말세에는 아직 없었던 것이다. 교화가 이미 널리 미치자 유람을 다니다가 아슬라주(阿瑟羅州)에 이르렀다.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물속으로 맞아들이니 불법을 강의하고 [물고기와 자라가] 계를 받았다. 이때가 곧 천보 11년 임진 2월 15일이다. 어떤 책에는 원화(元和) 6년(811년)이라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원화는 헌덕왕대(憲德王代)이다. 성덕왕대로부터 거의 70년이다.

경덕왕이 그것을 듣고 궁 안으로 맞아 들여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조(租) 7만 7천 석을 시주하였고 왕후와 외척 모두 계품(戒品)을 받고 견 5백 단, 황금 50량을 보시하였다. 이를 모두 받아서 여러 사찰에 나누어주고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 그 사리는 지금 발연사(鉢淵寺)에 있으니 곧 바다 생물들을 위해 계를 준 곳이다. [진표전간(眞表傳簡)]

진표는 교법을 받기를 마치자 금산사(金山寺)를 창건하고자 산에서 내려왔다. 대연진(大淵津)에 이르자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옥으로 된 가사를 바치고 8만 권속을 이끌고 시위하며 금산수(金山藪)로 갔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완성되었다. 다시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감응하여 구름을 타고 내려와 진표에게 계법을 주었는데, 진표는 시주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또 금당의 남쪽 벽에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위의(威儀)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갑진년(甲辰年) 6월 9일에 조성되어 병오년(丙午年)(766년) 5월 1일에 금당에 안치되었으니, 이해는 대력(大曆) 원년이다.

진표는 금산사를 나와 속리산으로 향하였는데 길에서 소달구지를 탄 사람을 만났다. 그 소들이 진표 앞을 향해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소달구지를 탄 사람이 내려서 묻기를 “어떤 이유로 이 소들이 화상을 보고 우는 것입니까. 화상은 어디

에서 오시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진표가 말하기를 “나는 금산수의 진표라는 승려인데, 나는 일찍이 변산 불사의 방에 들어가서 미륵·지장 두 성전에서 친히 계법과 진생(眞姓)을 받고 절을 짓고 머물러 오래 수도할 곳을 찾자 한 까닭으로 온 것이다. 이 소들은 겉은 미련하나 속은 현명하여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법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무릎을 꿇고 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듣기를 마치고 이내 “축생도 항상 이와 같은 신심이 있는데 하물며 나는 사람으로 어찌 마음이 없겠는가”라고 하고 즉 손으로 낮을 잡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 버렸다. 진표는 자비심으로써 다시 머리를 깎아주고 계를 주었다. 속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吉祥草)가 핀 곳을 보고 그것을 표시해 두었다.

돌아서서 명주(溟州) 해변으로 향하여 천천히 가는데 물고기, 자라 등의 무리가 바다에서 나와 진표의 앞으로 와서 몸을 이어 육지처럼 만드니, 진표가 그것을 밟고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암송하고 돌아서 나왔다. 가다가 고성군(高城郡)에 이르러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비로소 발연수(鉢淵藪)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7년을 살았는데 이때 명주의 경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려서 진표가 이를 위해 계법을 설하니 사람마다 받들어 지켜 삼보(三寶)를 지극히 공경하였다. 갑자기 고성 해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스스로 죽어서 나오니 백성들이 이것을 팔아서 식량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진표는 발연수를 나와 다시 불사의방으로 갔고 그런 후에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뵈기도 하고 혹은 진문대덕(眞門大德)의 방에 가서 살기도 하였다. 이때 속리산 대덕 영심(永深)이 대덕 융종(融宗)·불타(佛陁) 등과 함께 율사가 있는 곳에 와서 청하였다. “우리들은 1,000리를 멀지 않다 여기고 계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원컨대 법문(法門)을 주십시오.” 진표가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 땅에 거꾸로 떨어지며 용맹하게 참회하였다. 진표가 이에 가르침을 전하여 관정(灌頂)을 하고, 드디어 가사와 바리, 《공양차제비법(供養次第秘法)》 한 권, 《일찰선악업보경(日察善惡業報經)》 두 권과 생(姓) 189개를 주었다. 또 미륵의 진생(眞姓) 9자와 8자를 주고, 경계하여 말하였다. “9자는 법 자체이고 8자는 신종성불종자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맡기었으니 이를 가지고 속리산으로 돌아가라. 산에 길상초가 자라는 곳이 있으니 여기에 정사(精舍)를 세우고 여기에 따라 법을 가르쳐서 인간계와 천계를 널리 제도하고 후세에 널리 펼쳐라.” 영심 등이 가르침을 받들고 곧바로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창건하고 길상사(吉祥寺)라 하였다. 영심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열었다.

율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발연수에 이르러 같이 도업을 닦으며 효를 다하였다. 율사는 세상을 뜰 때 절의 동쪽 큰 바위 위에 올라 죽으니 제자들이 시신을 옮기지 않고 공양하고 해골이 흩어져 떨어질 때에 이르러 흠을 덮어 묻고 이에 무덤으로 삼았다. 푸른 소나무가 곧 나왔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자 말라죽었고, 다시 나무 한 그루가 났고 후에 다시 한 그루가 났는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 지금도 두 나무가 있다. 무릇 공경을 다하는 사람은 소나무 아래에서 뼈를 찾는데, 혹은 얻고 혹은 못 얻기도 한다.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

- 완산주 만경현 출생(김제) → 금산사 → 선계산(변산) → 영산사(부안에 있었던 사찰) → 금산사 → 속리산 → 명주(강릉) → 개골산(금강산) → 불사의방(부안에 있었던 사찰) → 고향 → 발연(개골산)

② 의상대사 (의해5 의상전교)

※ 내용 소개

법사(法師) 의상(義湘)은 아버지가 한신(韓信)으로 김(金)씨인데, 나이 29세에 서울의 황복사(皇福寺)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 서방으로 가서 불교의 교화를 보고자 하였다. 드디어 원효(元曉)와 함께 요동(遼東)으로 갔다가 변방의 순라군에게 첩자로 오인받아 수십 일 동안 갇혔다가 간신히 면하여 돌아왔다. 영휘(永徽) 초에 마침 당(唐)나라 사신의 배가 서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편승하여 중국(中國)으로 들어갔다. 처음 양주(楊洲)에 머물렀더니, 주장(州將) 유지인(劉至仁)이 청하여 관아 안에 머무르게 했는데 공양이 지극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로 찾아가서 지엄(智儼)을 배알하였다.

지엄의 전 날 밤 꿈에 큰 나무 하나가 해동(海東)에서 나서 [그] 가지와 잎이 널리 퍼져 중국(神州)에까지 와서 덮고, [그] 위에는 봉황의 둥지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니 마니보주(摩尼寶珠)가 하나 있어 광명이 멀리까지 비쳤다. [꿈을] 깨고는 놀랍고 이상히 여겨 청소를 하고 기다렸더니 의상이 바로 왔다. 특별한 예의로 맞아 조용히 말하기를, “나의 어제 꿈은 그대가 나에게 올 징조였다”고 하고 제자가 됨(入室)을 허락하니, [의상은] 《잡화경(雜花經)》의 미묘한 뜻을 구석구석 분석하였다. 지엄이 학문을 상의할 영특한 자질을 만나 새 이치를 능히 발견해내어 가히 깊은 것을 파고 숨은 것을 찾아내니, 쪽과 쪽두서니가 본색을 잃은 것과 같았다.

이미 본국의 승상(承相) 김흠순(金欽純) 혹은 인문(仁問)이라고도 하는데 그와 양도(良圖) 등이 당나라에 가서 구금되었고, 고종(高宗)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흠순 등이 비밀리에 의상에게 일러 앞질러 [신라로] 가게 하였다. 함형(咸亨) 원년 경오(庚午)에 귀국하여 [그] 사정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에 서는] 신인(神印) 대덕(大德) 명랑(明朗)에게 명하여 임시로 밀단법(密壇法)을 설치하고 기도하여 이를 물리치게 하니 이에 국난을 면하였다. 의봉(儀鳳) 원년(676년)에 의상이 태백산(太伯山)에 돌아와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대승(大乘)을 널리 퍼니 영감이 많이 나타났다.

종남산 [지엄의] 문인 현수(賢首)가 수현소(搜玄疏)를 찬술하여 의상에게 부분(副本)을 보내면서, 아울러 편지를 보내 은근하고 간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경(西京) 숭복사(崇福寺)의 중 법장(法藏)은 해동 신라 화엄법사(華嚴法師)의

시자(侍者)에게 글을 드립니다. 한 번 작별한 지 20여 년에 사모하는 정성이 어찌 마음에서 떠나리오마는, 구름이 자욱한 만 리 길에 바다와 육지가 천 겹으로 [막혀 있어서] 이 한 몸이 다시 만나 뵈 수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그리운 회포를 어찌 가히 말로써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의 같은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학업을 같이 했으므로, 이 과보를 얻어 함께 대경(大經)에 목욕하고 특별히 돌아가신 스승으로부터 이 심오한 경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러러 듣건대, 상인(上人)께서는 귀국 후에 화엄을 강의하고, 법계(法界)의 무진연기(無盡緣起)를 선양하며 겹겹의 제망(帝網)으로 불국(佛國)을 더욱 새롭게 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니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이로써 석가여래가 돌아가신 후에 불일(佛日)을 밝게 빛내고 법륜(法輪)을 다시 구르게 하여 불법을 오랫동안 머물게 할 이는 오직 법사뿐입니다.

법장은 매진하였으나 이론 것이 없고, 활동하였으나 볼 만한 것이 적어 우러러 이 경전을 생각하니 돌아가신 스승에게 부끄럽습니다. 분수에 따라 받은 것은 능히 버릴 수 없으므로 이 업에 의지하여 내세의 인연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화상(和尚)의 장소(章疏)가 뜻은 풍부하나 문장은 간략하여 후인으로 하여금 뜻을 알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화상의 은밀한 말과 오묘한 뜻을 적어 의기(義記)를 애써 완성하였습니다. 근래에 승전(勝詮)법사가 베껴서 고향에 돌아가 그 땅에 전하고자 하니, 청컨대 상인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상세히 검토하여 가르쳐 주시면 다행이옵니다. 엿드려 원하옵건대, 마땅히 내세에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음에 서로 함께 노사나불(盧舍那) 앞에서 이와 같은 무진(無盡)한 묘법(妙法)을 받고 무량(無量)한 보현(普賢)의 원행(願行)을 수행한다면 나머지 악업(惡業)은 하루 아침에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상인께서는 옛 일들을 잊지 마시고 어느 업의 세계에 있든지 간에 바른 길을 보이시고, 인편과 서신이 있을 때마다 생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의상은 이에 열 곳의 절에 교를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원주(原州)의 비마라사(毗摩羅), 가야산(伽倻)의 해인사(海印), 비슬산(毗瑟)의 옥천사(玉泉), 금정산(金井)의 범어사(梵魚), 남악(南嶽)의 화엄사(華嚴寺)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계도서인(法界圖書印)을 저술하고 아울러 간략한 주석을 붙여 일승(一乘)의 요긴한 알맹이(樞要)를 모두 포괄하였으니 천 년을 두고 볼 귀감이 되어 저마다 다투어 보배로 여겨 지니고자 하였다. 나머지는 찬술한 것이 없으나, 한 점의 고기로 온 솔의 국물 맛을 알 수 있다. 법계도는 총장(總章) 원년 무진(戊辰)에 이루어졌다. 이 해에 지엄도 입적하였으니 공자(孔子)가 기린을 잡았다는 [구절]에서 붓을 놓은 것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의상은 금산보개(金山寶蓋)의 화신이라고 하였다.

— 경주 황복사 → 경기 화성(당항성) → 중국 유학 → 귀국(경주) → 낙산사 → 태백산 부석사

— 화엄십찰(華嚴十刹) : 중악 팔공산 미리사(美里寺), 남악 지

리산 화엄사(華嚴寺), 강주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응주 가야현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甲寺), 삭주 화산사(華山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전주 모악산 국신사(國神寺), 한주 부아산 청담사(靑潭寺)

③ 원효대사 (원효불기)

※ 내용 소개

부석사의 본비[浮石本碑]에 의하면, 의상은 무덕(武德) 8년(625)에 탄생하여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영휘 원년 경술(庚戌)에 원효(元曉)와 함께 당에 들어가려고 고구려에까지 이르렀으나 어려움이 있어 돌아왔다.[권4 탐상, 전후소장사리]

원효가 이미 실계(失戒)하여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華嚴經)》의 「일체 무애인(無碍人)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는 [문귀에서 따서] 이름을 무애(無碍)라고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천촌만락(千村萬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南舞)를 칭하게 되었으니 원효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그가 태어난 마을 이름을 불지(佛地)라고 하고, 절 이름을 초개(初開)라고 하며, 스스로 원효라고 부른 것은 대개 부처를 처음으로 빛나게 하였다(初輝佛日)는 뜻이다. 원효도 방언이니 당시 사람들은 모두 향언(鄉言)으로 그를 첫새벽이라고 불렀다. [권5 의해, 원효불기]

원효(元曉)는 고선사(高仙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원효가 그[사복]를 보고 예를 갖추 맞이하였다. 사복은 답배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냄이 어떻겠소?”라고 하였다. 원효가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함께 집에 도착하였다. 원효에게 포살(布薩)시켜 주게 하였다. 시체 앞에 이르러 고축하기를,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도다”고 하였다. 사복이 말하기를, “말이 번거롭다”고 하였다. (원효가) 이를 고쳐서 말하기를,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였다.

두 분이 [시신을]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하기를,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사복이 이에 게(偈)를 지어 말하기를, “그 옛날 석가모니불은 사라수(娑羅樹)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지금 역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띠풀을 뽑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는 황량(晃朗)하고 청허(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

체를 엮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는 이에 돌아왔다.[권5 의해, 사복불언]

후에 원효법사(元曉法師)가 뒤이어 와서 [관음의 진신을] 보고 절하기를 구하여 당초에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삼아 벼를 달라고 하였더니, 여인이 장난말로 벼가 흉작이라고 대답하였다. [법사가] 또 길을 가서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월수건(月水帛)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마실 물을 청하니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드렸다. 법사는 이를 옆질러 버리고 냇물을 떠서 마셨다. 때마침 들 가운데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불러 말하기를, “제호화상(醍醐和尚)은 그만두시오?”라고 하고는 홀연히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 소나무 아래에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법사가 절에 이르니 관음 [상]의 자리 아래에 또 이전에 본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제서야 앞에서 만난 성스러운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하였다. 법사가 성굴(聖岫)에 들어가서 다시 [관음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권4 탑상, 낙산대성 관음 정취 조신]

원효가 반고사(磻高寺)에 머무를 때, 항상 낭지를 뵈러 가,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저술하게 하였다. [권8 피은, 낭지승은 보현수]

만년에 항사사(恒沙寺)로 옮겨 머물렀다. 이때 원효(元曉)가 여러 경소(經疏)를 찬술하고 있었는데 매양 법사에게 와서 질의하거나 혹은 서로 농담을 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개울을 따르며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변을 보고 있었는데 해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희롱하여 말하기를 “너의 변은 내가 먹은 물고기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어사라 이름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를 원효의 말이라고 하나 잘못이다. 향속에 그 개울을 모의천(茅矣川)이라고 잘못 부른다. [권5 의해, 이해동진]

— 경주 - 경기 화성(당항성) - 경주 고선사 - 양양 낙산사 -
울산 반고사 - 포항 오어사

3) 호국의 길

□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정.

① 무열왕과 문무왕 (기이1 태종 김춘추, 기이2 문무왕 범민, 만파식적)

※ 내용 소개

태종(太宗)은 백제국에 많은 괴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5년 경신(庚申)에 인문(仁問)을 사자로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당나라의 고종(高宗)은 좌호위대장군형국공 소정방(左虎衛大將軍荊國公 蘇定方)을 신구도행책총관(神丘道行策總管)으로 삼아 좌위장군 유백영(左衛將軍 劉伯英)과 좌호위장군 풍사귀(左虎衛將軍 馮士貴), 좌효위장군 방효공(左驍衛將軍 龐孝公) 등을 거느리고 13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벌케 했다. 신라왕 춘추를 우이도행군총관(嵎夷道行軍總管)으로 삼아 신라의 군사를 지휘하여 [당군과] 합세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城山)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국의 서쪽 덕물도(德勿島)에 이르니 왕은 장군 김유신으로 하여금 정예 병사 5만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중략) 당나라와 신라의 병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자왕은] 장군 계백(階伯)으로 하여금 결사대 5천을 지휘하여 황산(黃山)에 나아가 신라 병사와 싸우게 하였다. 그는 4번 싸워서 4번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부족하고 힘이 다하여 패전하고 계백은 황산에서 전사하였다.

당나라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몰아서 성에 들어 닥치니 왕이 [패배를] 면하지 못함을 알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후회한다.” 하고 마침내 태자 융과 함께 북쪽 지역으로 달아났다. 소정방이 도성을 포위하자 왕의 둘째 아들 태(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거느리고 굳게 지키니, 태자의 아들 문사(文思)가 왕 태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이 태자와 같이 성을 나가셨는데 숙부께서 마음대로 왕이 되었으니,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 우리들이 어찌 안전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좌우를 거느리고 성을 넘어 나갔다. 백성들이 모두 뒤를 따르니, 태는 능히 막을 수 없었다. 소정방이 군사를 시켜 성첩(城堞)에 올라 당나라의 깃발을 세우자, 태는 매우 급하게 되어 이에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청했다. 이에 왕과 태자 융, 왕자 태, 대신 정복(貞福)과 여러 성이 모두 항복하였다.[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듬해에 당나라의 고종(高宗)이 인문 등을 불러서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라고 하고, 곧 옥(圓扉)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조련하여 설방(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의상법사(義湘師)가 서쪽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보았는데, 인문이 그 사실을 알렸다. 의상이 곧 귀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책을 물었다. 각간(角干) 김천존(金天尊)이 아뢰기를, “근래에 명랑법사(明朗法師)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라고 하였다. 명랑이 아뢰기를, “낭산(狼山) 남쪽 신유림(神遊林)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정주(貞州)에서 사자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급박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명랑이 말하기를,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고, 유가명승(瑜伽名僧) 12명이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비밀법(文豆婁秘密法)을 지으니, 그때에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그 후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석(壇席)이 끊어지지 않았다.[문무왕법민(文武王法敏)]

제31대 신문대왕(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政明)이며, 성은 김씨다. 개요(開耀) 원년 신사(辛巳)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부왕(聖考)인 문무대왕(文武大王)을 위해 동해 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세웠다.

이듬해 임오(壬午) 5월 초하루에 해관(海官) 파진찬(波珍滄) 박숙청(朴夙淸)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日官) 김춘질(金春質)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三韓)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김공유신(金公庾信)도 33천의 한 아들로써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그달 7일에 이견대로 행차하여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사자를 보내 살펴보도록 했더니, 산의 형세는 거북의 머리 같고, 그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사자가 와서 그것을 아뢰니, 왕은 감은사로 가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오시(午時)에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쳐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 그 달 16일이 되어서야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도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가져다 바쳤다. 왕이 영접하여 함께 앉아서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용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천신(天神)이 되셨는데, 두 성인이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보내 저를 시켜 이를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17일에 기림사(祇林寺) 서쪽 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 이공(理恭) 즉 효소대왕(孝昭大王)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말을 달려와서 하례하고 천천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셨다. 태자가 아뢰기를,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면 아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의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을 용연(龍淵)으로 불렀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만파식적(萬波息笛)]

— 백강, 탄현, 황산(황산벌), 사비성(부소산성) ; 사천왕사 문두루도량, 대왕암 ; 감은사, 이견대

② 화랑들의 이야기 (기이1 장춘랑 파랑, 의해5 원광서학) : 황산벌 전투에서 죽은 장춘랑과 파랑, 세속오계를 전해 받은 귀산과 추항

※ 내용 소개

처음에 백제군사와 황산에서 싸울 때에 장춘랑과 파랑이 진중에서 죽었는데, 후에 백제를 토벌할 적에 태종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신 등은 이전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버리었고 지금은 백골이 되었으나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여 군행(軍行)에 따라 나가기를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위엄에 놀려 남의 뒤만 쫓아다닙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저희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주십시오.” 하였다. 대왕이 놀라고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두 훈령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불경을 설하고 또한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壯義寺)를 세워 이로서 그들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장춘랑파랑(長春郎罷郎)]

《삼국사(三國史)》 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진 선비 귀산(貴山)이라는 자는 사랑부(沙梁部) 사람이다. 같은 마을 추항(簫項)과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우리들은 사군자(士君子)와 더불어 교유하고자 기약하였으나 먼저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지키지 않으면 곧 모욕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자(賢者)의 곁에서 도를 묻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갔다 돌아와 가슬갑(嘉瑟岬)에 머문다는 것을 들었다. 두 사람은 문에 나아가 고하여 말하였다. “俗士는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컨대 한 말씀 내리셔서 평생 동안의 교훈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원광이 말하였다. “불교에는 보살계(菩薩戒)가 있으니 그것은 10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른 이들의 신화와 자식된 자이니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의 5개의 계율이 있으니 첫 번째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두 번째는 효로 부모를 섬긴다, 세 번째는 친구와 사귀에 믿음이 있게 한다, 네 번째는 전투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다, 다섯 번째는 살생을 함에 가림이 있게 한다 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행함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 귀산 등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곧 이미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살생을 함에 가림이 있게 하라는 것은 특히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원광이 말하였다. “육재일(六齋日)과 봄과 여름에는 살생을 하지 않으니 이것이 때를 가리는 것이다. 가축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 소, 닭, 개를 말하는 것이다. 세물(細物)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가 한 점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것이 생물을 가린다는 것이다. 이 또한 오직 그 쓰이는 바만 하고 많이 죽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세속의 좋은 경계이다.” 귀산 등이 말하였다. “지금 이후로 받들어 잘 펼치고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군사(軍事)를 따랐는데 모두 국가에 큰 공이 있었다. [원광서학(圓光西學)]

- 황산(황산벌), 한산주 장의사(서울 창의문 밖) ; 가슬갑사(청도 운문사)

4) 교류의 길

□ 고대사회에서 한반도를 넘어 외부 세계와 교류하였던 이야기들을 선정.

① 기이1 연오랑 세오녀, 기이2 신무대왕 염장 궁과, 처용랑 망해사, 가락국기, 의해5 원광서학, 귀축제사

※ 내용 소개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이 즉위한 4년 정유(丁酉)에 동해의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가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연오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 버렸다. 일본국 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이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하고 이에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음을 보고 역시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다시 그 전처럼 세오를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 왕에게 나아가 아뢰니 부부가 다시 서로 만나고 [세오는] 귀비(貴妃)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일관(日官)이 나아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므로 나의 비(妃)가 짝 고운 명주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자, 그 말대로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해와 달이 그 전과 같이 되었다. 그 비

단을 왕의 창고에 잘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였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라 하였다.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京師)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이때에 대왕이 개운포(開雲浦)에 나가 놀다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은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게 물으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그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했다. 왕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개운포라고 이름하였다. 동해의 용은 기뻐하여 이에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사를 도왔는데 이름은 처용(處容)이라 했다.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처용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려 했으며 또한 급간의 벼슬을 내렸다. 그 처가 매우 아름다워 역신이 그녀를 흠모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함께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노래는 이렇다.

“동경밤은 달에 / 밤들어 노니다가 / 집에 들어와 자리를 보니 / 다리가 넷이러라 / 둘은 내 것인데 / 둘은 뉘 것인고 / 본디는 내 것이다마는 / 앗은 것을 어찌할꼬”

이때에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어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녀를 범했습니다. 공이 이를 보고도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로는 공의 형용(形容)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國人)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이 서울에 돌아오자 영취산(靈鷲山)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望海寺)라고 했다. 또한新房사(新房寺)라고도 이름하였으니 곧 용을 위해 세운 것이다.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

건무(建武) 24년 무신 7월 27일에 구간(九干) 등이 조회할 때 아뢰기를 “대왕이 강령하신 이래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셨으니 청컨대 신들의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여보내어 항려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짐에게 짝을 지어 왕후(王后)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라고 하고,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경주(輕舟)를 이끌고 준마(駿

馬)를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帖)으로 가게 하였다.

갑자기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색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매달고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은 먼저 망산도 위에서 햇불을 올리니 곧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왔다. 신귀간은 이것을 보고 대궐로 달려와서 그것을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간(九干) 등을 찾아 보내어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이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본래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서로 따라가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하니 왕은 그렇다고 여겨 유사(有司)를 이끌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의 산 주변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왕후는 산 밖의 별포(別浦) 나루에 배를 대고 땅으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고, 입고 있는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山神靈)에게 바쳤다. 그 밖에 시종한 잉신(媵臣) 두 사람의 이름은 신보(申輔)·조광(趙匡)이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라고 했으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왕후가 점점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니 왕은 나아가 그를 맞아서 함께 유궁(帷宮)으로 들어왔다. 잉신 이하 여러 사람들은 섬돌 아래에 나아가 뵈고 곧 물러갔다. 왕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잉신 내외들을 인도하게 하고 말하였다. “사람마다 방 하나씩을 주어 편안히 머무르게 하고 그 이하 노비들은 한 방에 5, 6명씩 두어 편안히 있게 하라.”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蕙草)로 만든 술을 주고, 무늬와 채색이 있는 자리에서 자게 하고, 옷과 비단과 보화도 주었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皇天)을 뵈었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首露)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 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깬 뒤에도 황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蟠桃)를 찾아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와 혼인해서 함께 이틀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는 데 뱃사공이 모두 15명이니 이들에게 각

각 쌀 10석과 베 30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8월 1일에 왕은 대궐로 돌아오는데 왕후와 한 수레를 타고, 잉신 내외도 역시 재갈을 나란히 수레를 함께 탔으며,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도 모두 수레에 싣고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니 이때 시간은 오정(午正)이 되려 하였다. 왕후는 이에 중궁(中宮)에 거처하고 잉신 내외와 그들의 사속(私屬)들은 비어 있는 두 집을 주어 나누어 들어가게 하였고, 나머지 따라온 자들도 20여 칸 되는 빈관(賓館) 한 채를 주어서 사람 수에 맞추어 구별해서 편안히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지급하는 것은 풍부하게 하고, 그들이 싣고 온 진귀한 물건들은 내고(內庫)에 두고 왕후의 사시(四時)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가락국기(駕洛國記)]

— 영일현 ; 청해진 ; 울산 개운포, 망해사 ; 망산도(김해 풍류 동 칠산 추정) → 승점(김해 봉황동)

5) 일연의 길

□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행적이 남아 있는 장소들을 정리

※ 내용 소개 - 인각사보각국사비(麟角寺普覺國師碑) 일연 행적 부분

국존(國尊)의 휘는 견명(見明)이요, 자는 회연(晦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然)으로 바꾸었다. 속성은 김씨(金氏)요, 경주(慶州) 장산군(章山郡)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언필(彦弼)이니, 벼슬은 하지 않고 교사(教師)로써만 일생을 살았으므로, 죽은 후에 좌복야직(左僕射職)을 추증(追贈)받았고, 어머니는 이씨(李氏)니, 낙랑군부인(樂浪郡夫人)으로 봉(封)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태양이 방안에 들어와 그 빛이 복부(腹部)에 비추기를 사흘 밤을 계속하는 태몽을 꾸고 임신하여 태화(泰和) 병인년(丙寅年) 6월 신유일(辛酉日)에 탄생하였다. 날 적부터 준매(俊邁)하여 의표(儀表)가 단정하고, 풍준(豐準)한 몸매에 입은 방구(方口)이며, 걸음은 우행(牛行)이고, 살핍은 호시(虎視)와 같았다.

어릴 적부터 세진(世塵)을 벗어나려는 뜻이 있어 나이 즉 연보(年甫)가 9살 때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로 가서 취학(就學)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 총명함이 비길 자가 없었다. 유시(有時)에는 밤이 새도록 마치 말뚝처럼 위좌(危坐)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겼다. 흥정(興定) 기묘년(己卯年)에 진전사(陳田寺)의 대웅장로(大雄長老)를 은사(恩師)로 하여 득도(得度)한 다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이로부터 선방(禪房)으로 다니면서 참선하여 명성이 점점 높아져서 당시 사람들이 추대하여 구산(九山) 중 사선(四選)의 수장(首長)으로 삼았다. 정해년(丁亥年) 겨울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승과(僧科)에 응시하여 상상과(上上科)에 합격하였다. 그 후 포산(包山) 보당암(寶幢庵)에 주석하면서 마음에 간절히 선관(禪觀)을 닦았다. 병신년(丙申年) 가을에 병란(兵亂)이 있어 스님께서 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곧 문수(文殊)의 오자주(五字呪)를 염(念)하면서 감응(感應)을 기약하

였더니, 홀연히 벽간(壁間)으로부터 문수보살이 현신(現身)하여 이르시기를 무주난야(無住蘭若)에 주석(住錫)하라고 계시하였다. 그 다음해 여름 다시 이 포산(包山) 묘문암(妙門庵)에 거주(居住)하였으니, 암자 북쪽에 난야(蘭若)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주(無住)이므로, 곧 전일(前日)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기별(記別)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암자(庵子)에 주석하면서 항상 생계가 불감(不減)하고, 불계(佛界)가 불증(不增)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참구(參究)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금일(今日)에야 비로소 삼계(三界)가 환몽(幻夢)임을 알고 보니, 진대지(盡大地)가 섬호(纖豪)만치도 장애(障礙)함이 없더라고 하였다.

이 해에 삼중대사(三重大師)의 법계를 비수(批授)받았으며, 병오년(丙午年)에는 이어 선사(禪師)의 법계를 받았다. 기유년(己酉年)에 정상국(鄭相國)인 안(晏)이 남해(南海)에 있는 사제(私第)를 희사하여 절을 만들고 정림사(定林寺)라 이름하고, 스님을 청하여 주지로 추대하였으며, 기미년(己未年)에 이르러 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받았다. 중통(中統) 신유년(辛酉年)에 왕명을 받들어 개경(開京)으로 가서 선월사(禪月社)에 주석하면서 개당(開堂)하고 목우화상(牧牛和尚) 지눌(知訥)의 법통을 요사(遙嗣)하였다. 지원(至元) 원년(元年) 가을에 이르러 여러 차례 남환(南還)을 요청받고, 오어사(吾魚社)에 우거(寓居)하였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인홍사(仁弘社) 주지만회(萬恢)가 일연(一然)에게 주석(主席)을 넘겨 주었는데, 학려(學侶)가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무진년(戊辰年) 여름 왕명에 의하여 이름이 높은 선사(禪師)와 강사(講師) 등 1백 명을 초청하여 대장경(大藏經) 조조(彫造) 낙성법회(落成法會)를 운해사(雲海寺)에 개설하고, 스님을 청하여 주맹(主盟)으로 모시고, 낮에는 금문(金文)을 독송하고, 밤에는 종취(宗趣)를 담론(談論)하니, 제가(諸家)들이 의심하던 바를 스님께서 모두 해박하게 부석(剖釋)하였으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하여 핵심적인 뜻이 귀에 속속 들어와서 경복(敬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스님께서 인홍사(仁弘社)에 주석한지 11년만에 이 절이 창건한지 아미 오래되어 전당(殿堂)이 퇴락할 뿐아니라, 또 추애(湫隘) 즉 지반이 내려 앉고, 너무 비좁아서 중수(重修)하거나, 신건(新建)하여 회곽(恢廓)하게 확장하고 조정(朝廷)에 주청하여 인홍사를 고쳐 인흥사(仁興寺)라 이름하고, 어필(御筆)로 제액(題額)을 하사받았으며, 또 포산(包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 용천사(涌泉寺)를 중수하여 불일사(佛日社)로 개칭하였다. 충렬왕이 즉조(卽祚)한지 4년 정축(丁丑)에는 임금이 운문사(雲門寺) 주지(住持)로 추대하여 현풍(玄風)을 크게 천양(闡揚)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금께서는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져 다음과 같은 찬시(讚詩)를 지어 보냈다.

밀전(密傳)함에 어찌 구의(摠衣)를 필요(必要)하라?
 금지(金地)서 서로 만남 기이(奇異)할 뿐일새
 연공(璉公)도 왕청(王請) 받아 궐내(闕內)로 갔거늘
 스님은 어찌 백운(白雲)만 그리십니까?

신사년(辛巳年) 여름 왕이 동정(東征)으로 인하여 동도(東都)로 행차하여 스님께 부행(赴行)하기를 청하여 주중(駐中)에서 법문을 듣고, 크게 존경심을 일으켜 불일사(佛日社)에서 결사(結社)하게 된 그 결사문(結社文)에 제압(題押)하여 불일사에 보관토록 하였다.

다음해 가을 근시(近侍) 장작윤(將作尹) 김군(金顔)을 보내서 조서(詔書)를 가지고 궐하(闕下)로 맞이하여 대전(大殿)에서 선법문(禪法門)을 청해 듣고, 용안(龍顔)에 기꺼움이 가득하였다. 이어 왕명으로 유사(有司)에게 시켜 광명사(廣明寺)내에 원관(院館)을 짓게 하여 스님으로 하여금 입원(入院)케 한 날 밤중에 어떤 사람이 방장실(方丈室) 밖에 서서 이르기를 “저 왔습니다.”라고 하므로, 세 번이나 문을 열고 살펴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겨울 12월에는 총렬왕이 수레를 타고 친히 스님을 방문하여 법문을 들었다. 다음해 봄 임금께서 군신(群臣)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선왕(先王)들은 모두 석문(釋門) 중에 덕이 높은 스님은 왕사(王師)로 모시고, 또 더 큰 스님은 국사(國師)로 추대하였거늘, 부덕(否德)만이 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운문화상(雲門和尚)은 도(道)가 높고, 덕(德)이 커서 모든 국민이 함께 숭앙(崇仰)하거늘, 어찌 과인(寡人)이 스님의 자택(慈澤)을 크게 입었음이라! 마땅히 모든 국민들과 함께 존송하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승지(右承旨)인 염승익(廉承益)을 보내서 윤지(綸旨)를 받들어 청하여 합국존사(闔國尊師)의 예를 행하려 하였으나, 스님은 표장(表狀)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사신을 보내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고, 상장군(上將軍) 나유(羅裕) 등을 보내어 책봉하여 국존(國尊)으로 삼고, 호를 원경충조(圓徑冲照)라 하였다. 4월 신묘일(辛卯日)에 대내(大內)로 맞이하고, 왕이 몸소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구의(樞衣)의 예(禮)를 행한 다음, 국사를 고쳐 국존이라 하게 된 것은, 대조(大朝)[원(元)]의 제도인 국사(國師)란 칭호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스님은 평소에 경연(京輦)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노모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 구산(舊山)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비는 그 사의(辭意)가 심히 간절하여 임금께서 거듭 그 뜻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침내 윤희하시고, 근시(近侍) 좌랑(佐郎) 황수명(黃守命)에 명해서 귀산(歸山)을 호행(護行)하여 영친(寧親)토록 하였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출가자(出家者)로써 희유(希有)한 효심(孝心)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 다음해에 노모께서 96세로 별세(別世)하였다. 그 해에 바로 조정(朝廷)에서는 인각사(麟角寺)로써 스님의 하안지지(下安之地)로 삼고, 근시 김용일(金龍弔)에게 명하여 절을 수습(修葺)케 하고, 또 토지(土地) 백여경(百餘頃)을 헌납하여 상주(常住)를 갖추도록 하였다. 스님께서 이 절에서 구산문(九山門)의 도회(都會)를 개설하니, 총림의 성황(盛況)이 근고(近古)에 비길데 없었다.

기축(己丑)년 6월 병(病)이 일어났고, 7월 7일에 이르러 손수 대내(大內)에 올릴 편지를 쓰고, 또 시자(侍者)를 시켜 편지를 써서 상국(相國)인 염승익(廉承益)에게 보내어 장왕(長往)을 알리도록 하고는, 모든 선로(禪老)들과 더불어 날이 저물도록 문답하였다. 이날 밤 1척이나 되는 큰 별이 방장실(方丈室) 후원에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다. 다음 날 을유(乙酉)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 대중

(大衆)에 이르기를, 내가 오늘 떠나려 하는데, 혹시 중일(重日)이 아닌지? 하고 물었다. 시자가 대답하되 중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법고(法鼓)를 치게 하고 스님께서는 선법당(善法堂) 앞에 이르러 선상(禪床)에 걸터앉아 인보(印寶)를 봉함하여 장선별감(掌選別監)인 김성고(金成固)에 명하여 다시 거듭 봉필(封畢)하고, 천사(天使)가 오거든 노승(老僧)의 말후사(末後事)를 알리라 하였다. 어떤 스님이 국존(國尊)의 앞에 나타나 문기를 “석존(釋尊)께서는 학림(鶴林)에서 열반에 드셨고, 화상(和尚)은 인령(麟嶺)에서 입적(入寂)하시니, 그 상거(相去)[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나이다.” 하니, 스님께서 주장자를 잡고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상거가 얼마나?”고 반문하였다. 나외여 이르되 “그렇다면 금(今)과 고(古)가 마땅히 변천함이 없어 분명하게 목전(目前)에 있나이다.” 하니, 스님께서 또 주장자(柱杖子)를 잡고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분명히 목전에 있다.”라고 하였다. 나외여 이르되, “뿔을 세 개 가진 기린이 바다에 들어가고, 공여(空餘)에 달린 조각달이 물속에서 나오다.”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훗날 다시 돌아오면 상인(上人)과 더불어 거듭 한 바탕 놀자.”고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이 문기를, “화상께서 백년후에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다만 일상생활 이것 뿐이라.”고 했다. 나외여 이르되 “군왕(君王)과 더불어 일개(一箇) 무봉탑(無縫塔)을 조성하더라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이르기를 “어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하였다. 나외여 이르되, “법(法)을 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스님께서 이르시길 “이 일은 모두 아는 사실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이 화상에게 문기를 “스님은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으며, 몸을 보되 또한 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대법륜(大法輪)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佛事)를 하고 있느니라.” 하였다. 이와 같이 문답이 끝난 다음, 스님께서 모든 선덕(禪德)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境地)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지(痛痒之)[유념(有念)]와 가렵지 않은 불통양지(不痛痒之)[무념(無念)]가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주장자를 들어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이 곧 통양(痛痒)이라.” 하고, 또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은 불통저(不痛底)라.” 하며, 세 번째 내리치고는 “이것은 통지(痛之)냐? 부통지(不痛之)냐? 시험삼아 자세히 살펴보라.”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와 방장실(方丈室)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선상(禪床)에 앉아서 담소함이 평소와 같았다. 잠시 후 손으로 금강인(金剛印)을 맺고 조용히 입적하시니, 오색 광명이 방장실 뒤쪽에서 일어났는데, 곧기가 당간(幢竿)과 같고, 그 단엄하고 옥옥(煜煜)함은 불꽃과 같으며, 화염상(火炎上)에는 백운(白雲)이 일산(日傘)과 같이 덮인 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떠나갔다. 때는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얼굴 모양은 생전과 같이 선백(鮮白)하고 지체(支體)는 윤택하며, 굴신(屈伸) 작용은 생시와 같이 유연하였다. 원근(遠近)으로부터 참관(參觀)하러 찾아온 사람이 운집하여 마치 담장처럼 주변을 가득 채웠다. 정해일(丁亥日)에 도유(闍維)하고 영골(靈骨)을 수습하여 선실중(禪室中)에 안치하고, 문인(門人)이 유장(遺狀)과 인보(印寶)를 가지고 역마를 타고 화급히 임금께 주문(奏聞)하였다. 부음을 접한 임금

은 크게 진도(震悼)하시고, 판관후서사(判觀候署事)를 보내어 척연(倜然)하게 식종(飾終)의 예식을 거행토록 하고, 또 안렴사(按廉使)에 명하여 장례를 감호(監護)케 하고는, 이어 제조(制詔)를 내려 시호를 보각(普覺), 탑호를 정조(靜照)라 하였다. 10월 신유일(辛酉日)에 탑을 인각사의 동쪽 산등성이에 세웠는데, 세수는 84이고, 법랍은 71세였다.

- 장산군(경산) 출생 → 해양(무주) 무량사 → 진전사(설악산) → 개경 광명사 → 포산 보당암 → 금불암(비슬산) → 무주암(비슬산) → 정안 사제(남해)·정립사 주석 → 강화경선원사 개당 → 오어사(청하) → 인흥사 주석 → 운해사 대장낙성회 → 인흥사(비슬산) 수리, 인흥사 개액, 용천사(비슬산) 중증 불일사로 함 → 운문사(청도) 주석 → 충렬왕 동도(경주) 행재소 → 광명사에서 충렬왕 자문 → 인각사(군위) 하안지지

<지도 2> 통합의 길 - ① 서동요 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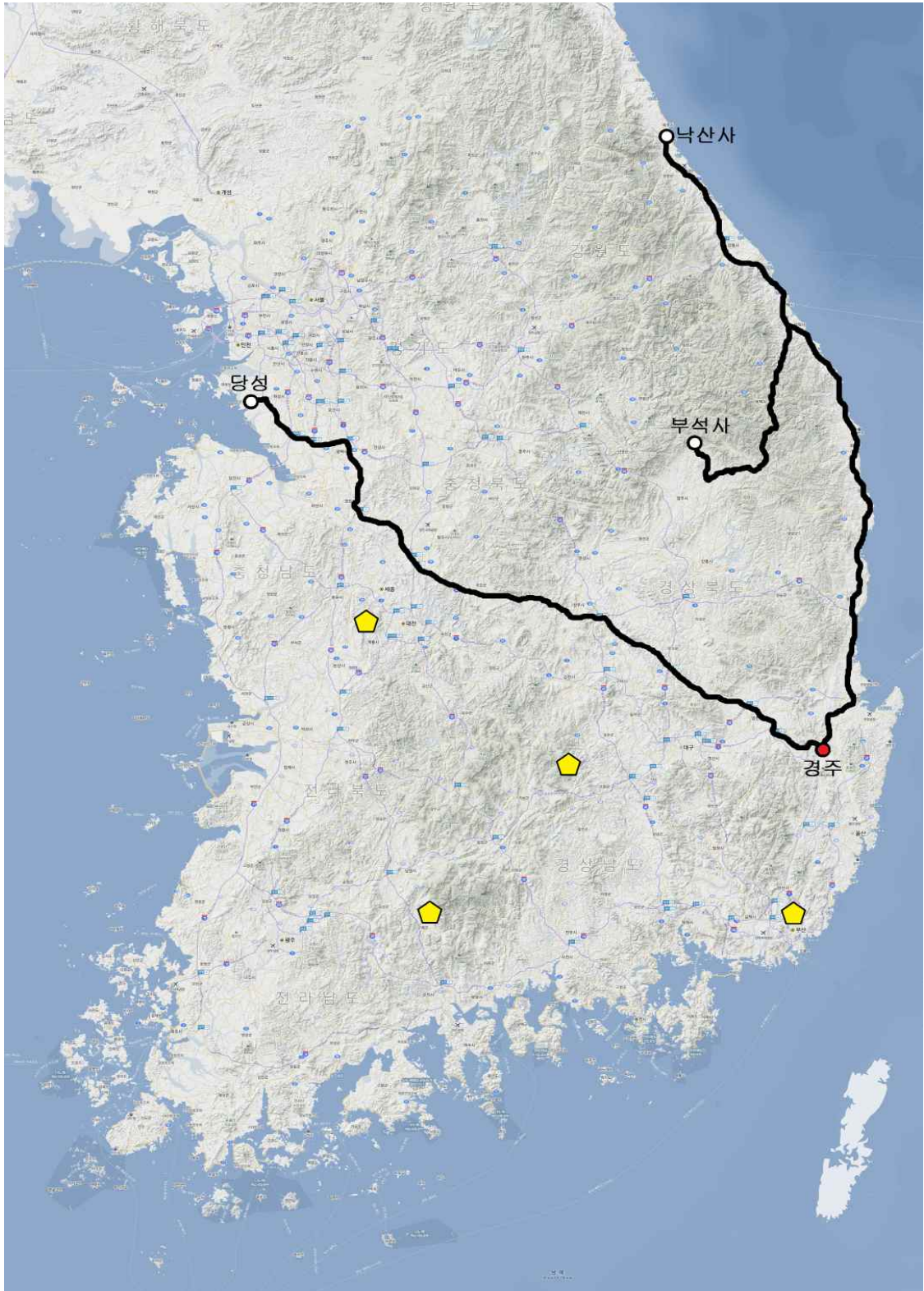
<지도 3> 통합의 길 - ② 거득공 이야기



<지도 4> 구도의 길 - ① 진표대사



<지도 5> 구도의 길 - ② 의상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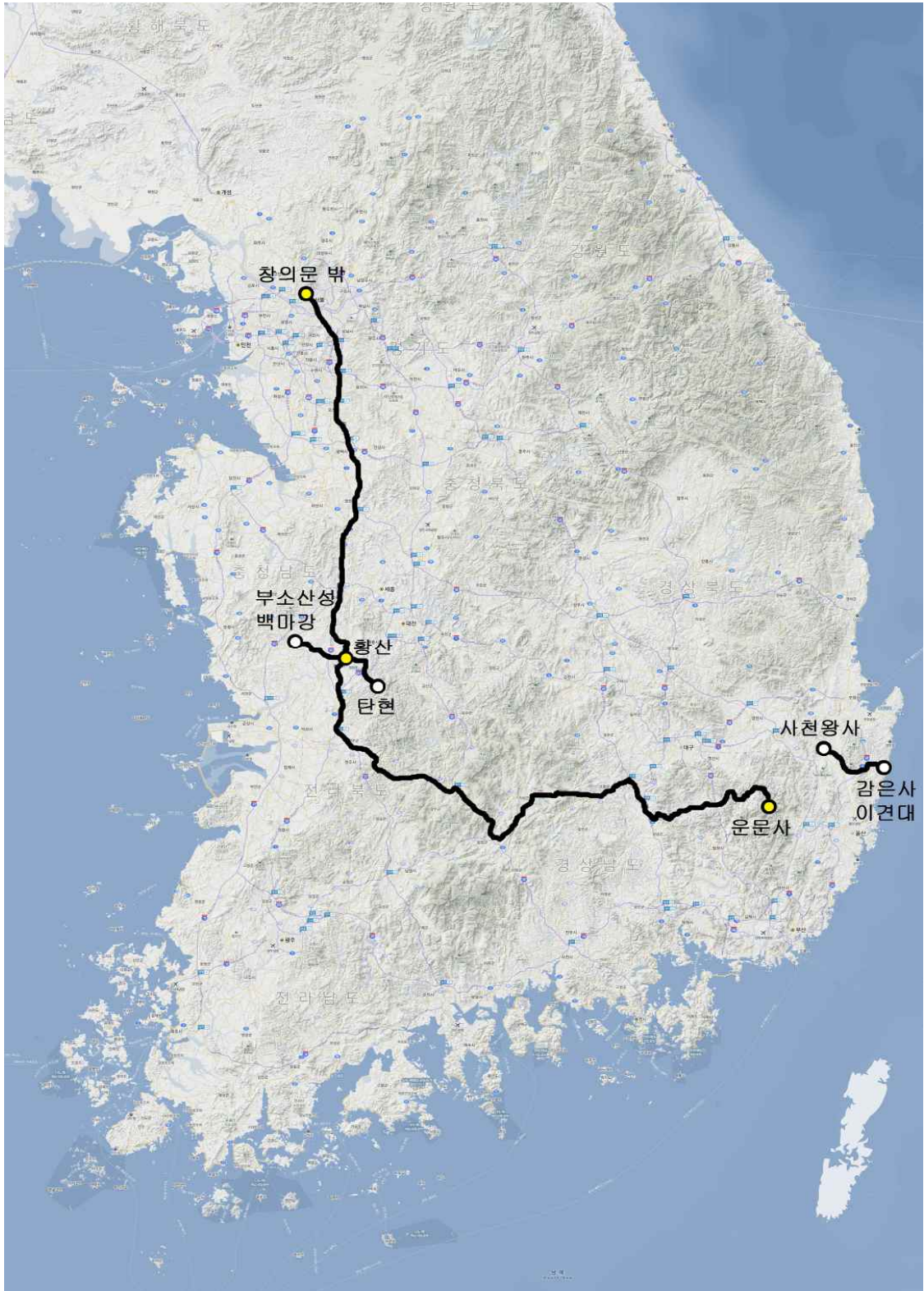


⬠ : 화엄십찰 비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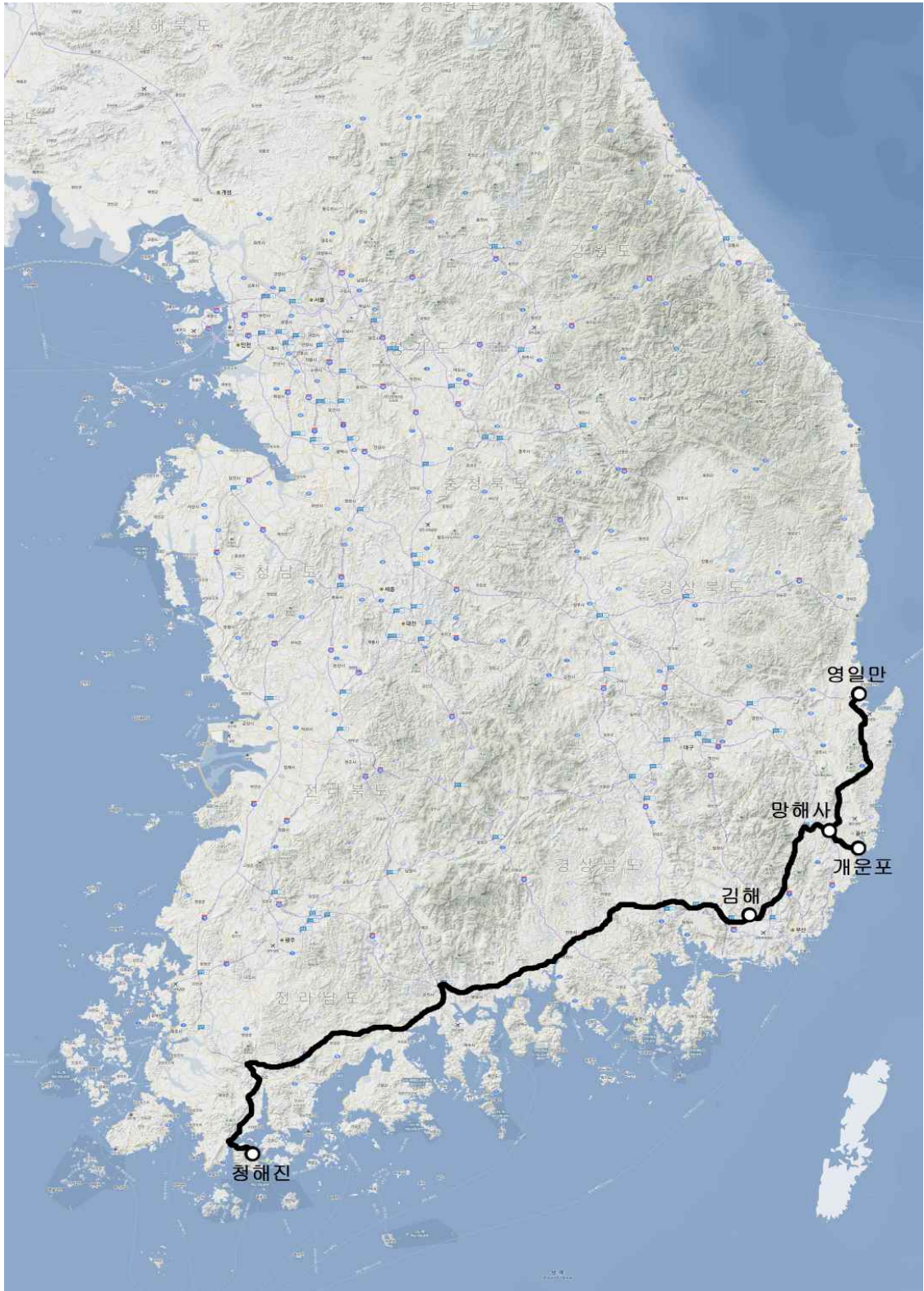
<지도 6> 구도의 길 - ③ 원효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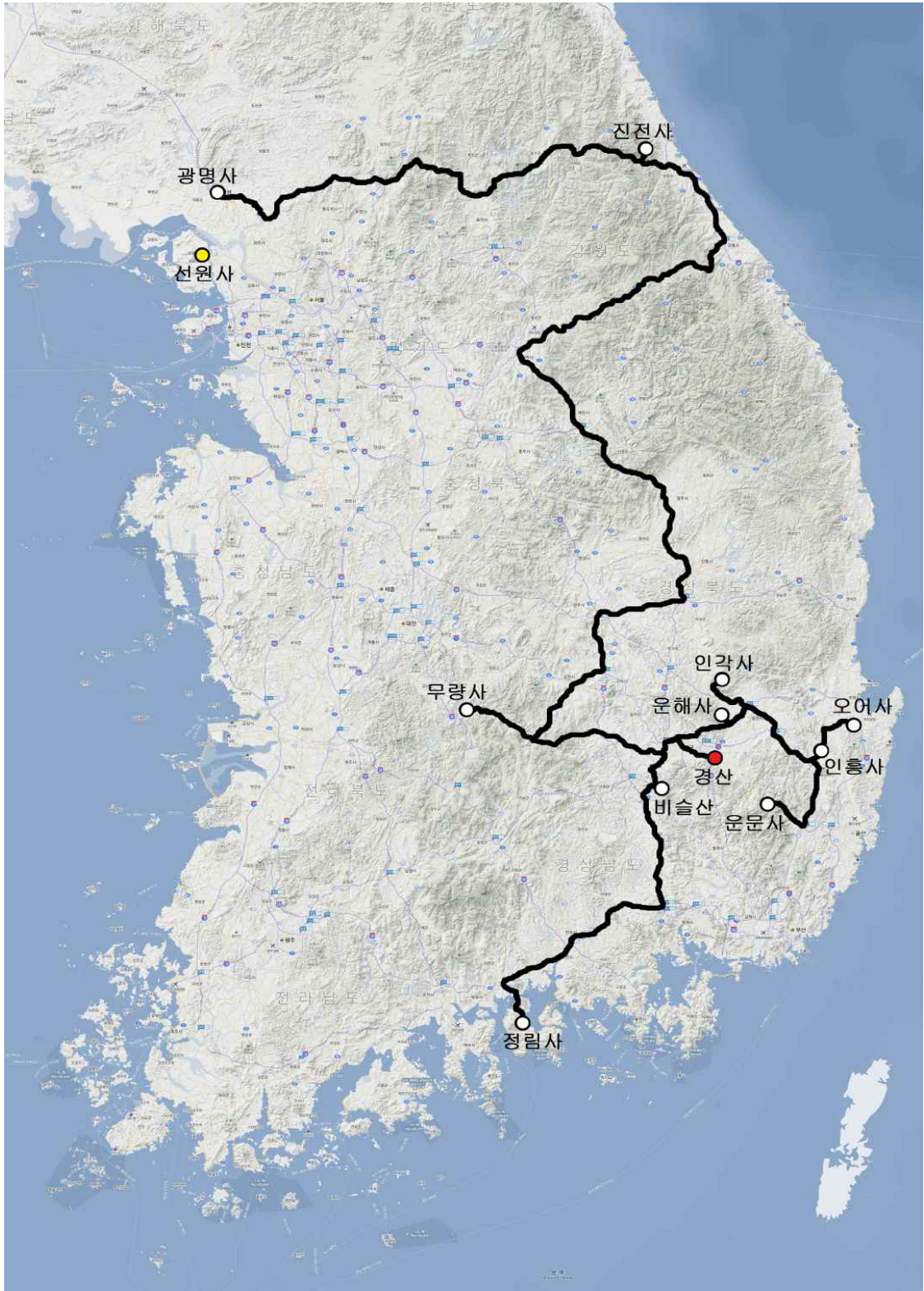
<지도 7> 호국의 길



<지도 8> 교류의 길



<지도 9> 일연의 길



Ⅲ.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화 계획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전담기관 설립
 - 1) 설립의 필요성
 - 2) 설립 근거와 설립 방법
 - 3) '(가칭)삼국유사 역사문화 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
2. 삼국유사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 1) 삼국유사 관련 기초 연구
 - 2) 삼국유사 역사 문화 콘텐츠 연구
 - 3) 삼국유사 가치 공유 및 확산
3. 삼국유사 미래형 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 1)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지정 방안
 - 2)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조성 방안
 - 3) 문화관광단지의 구성 방안
 - 4) 문화관광단지의 운영 방안
 - 5)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특화 방안
 - 6)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활용 방안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구상
 - 1) 삼국유사 이야기 현장 현황
 - 2)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구성 방안
 - 3)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방안
 -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구축 방안
 -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방안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사업 방안
 - 1) 삼국유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 2)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 3) 삼국유사 공동 문화상품 개발 및 콘텐츠 개발 방안
 -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공동 사업 방안
 -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구체사업 예시

Ⅲ.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화 계획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전담기관 설립

1) 설립의 필요성

- 삼국유사 역사 문화벨트 사업 전체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 기능의 기관 설립을 통해, 보존 및 연구로부터 활용과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삼국유사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및 연구 진흥, 교육, 콘텐츠 생산 등에 대한 통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주체가 필요
- 삼국유사 관련 기존 기능들을 융합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이 필요

2) 설립 근거와 설립 방법

가. 설립 근거

-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기관으로의 설립이 필수적임
-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 국가주도의 기관 설립
 - 1안) 정부기관 또는 국가 소속 기관으로 설립
 - 2안) 중앙정부가 투자·출자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

□ 1안 - 정부기관 또는 국가 소속 기관으로 설립

- 국가 소속기관(정부기관)으로 설립되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임
- 대표적인 국가 소속 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예시

기관명	설립 근거	특징
국사편찬위원회	<p>-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 2장(4조~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p> <p>-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5751]</p> <p>-국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교육부령 제1호]</p>	- 국사편찬위원회 육성에 관한 법률이 아님
<p>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p>	<p>-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직제 ([대통령령 제26596호])</p> <p>한국예술종합학교(3장)/ 국립중앙박물관(4장)/ 국립국어원(5장)/ 국립중앙도서관(6장)/ 해외문화홍보원(7장)/ 국립국악원(8장)/ 국립민속박물관(9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9-2장)/ 국립중앙극장(10장)/ 국립현대미술관(11장)/ 한국정책방송원(12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12-2장)</p>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직제로 운영 (문화부 소속기관)

- 기관 설립의 모범을 만들거나 또는 중앙정부에 속한 소속 직제에 포함 시켜 설립

— 모범은 특수한 업무 영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그것에 따른 국가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정 :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설립

- 중앙정부 소속 직제 : 중앙정부 중요 부처의 업무 성격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기관을 설립할 때 소속 직제에 명기하고 기관을 설립

□ 2안 -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설립

- 공공기관의 개념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정부의 투자·출자·출연 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도 법률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이 필수적
- 공공기관 분류 및 지정 현황(2015년 현재)

분류	중분류	내용	대표기관	알리오 등재기관수
공기업	시장형	-자산규모 2조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이상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4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6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및 관리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7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69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 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
계				316

— 위탁형 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기관명	설립 근거	특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13448호] 31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법이 아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설립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12844호])	-기관의 자체 법률로 규정

— 기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기관명	설립 근거	특징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법([법률 제11690호])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기관자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법률 제1169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기관자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11690호]) -동북아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기관자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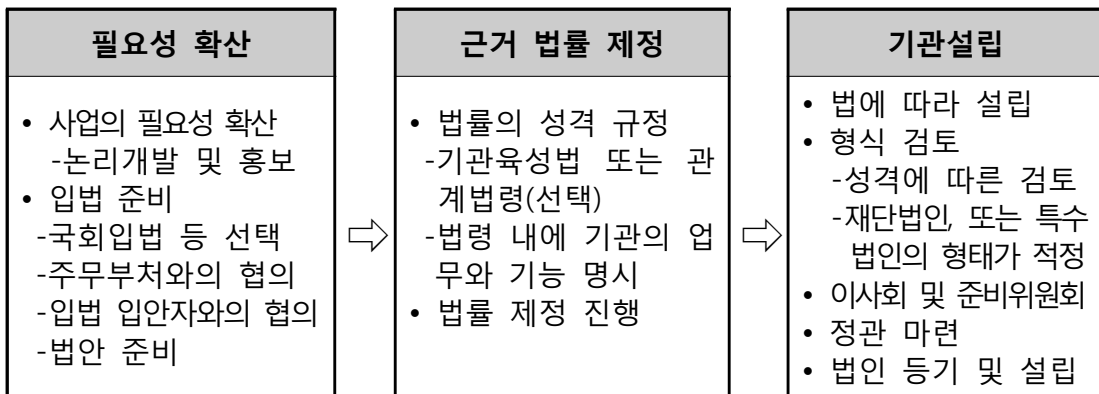
-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 : 중앙정부의 직제나 소속 기관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정부 재원이 출자·출연 되는 공공 기관 역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함
- 법률적 근거는 기관의 육성법처럼 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일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음

나. 설립의 방법

□ 설립 절차

○ 설립의 절차는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실제 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 절차 개요



□ 설립 절차별 주요 내용

○ 필요성 확산

-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증폭 :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 그것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도록 인식을 확산해 가는 과정
-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점의 전통문화 접근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삼국유사에 기반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적 가능성에 대한 세부 연구 진행

○ 입법 준비 단계

- 국회 입법, 또는 행정부 입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 마련 : 입법은 국회 입법이 일반적이며, 추진상이 유리함이 있음. 다만 이 경우 관련 입법부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

- 주무부처와의 협의 진행 : 비록 국회 입법으로 진행하다고 해도, 주무부처와의 기본안을 협의함으로써, 입법 후 바로 업무 추진이 주무부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등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각각이 논리 마련)
- 법안 준비 : 입법 입안자를 선택하고 법안의 협의를 통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안에 대한 전문성을 제언하고 그 영역이 명시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일을 진행)

○ 근거 법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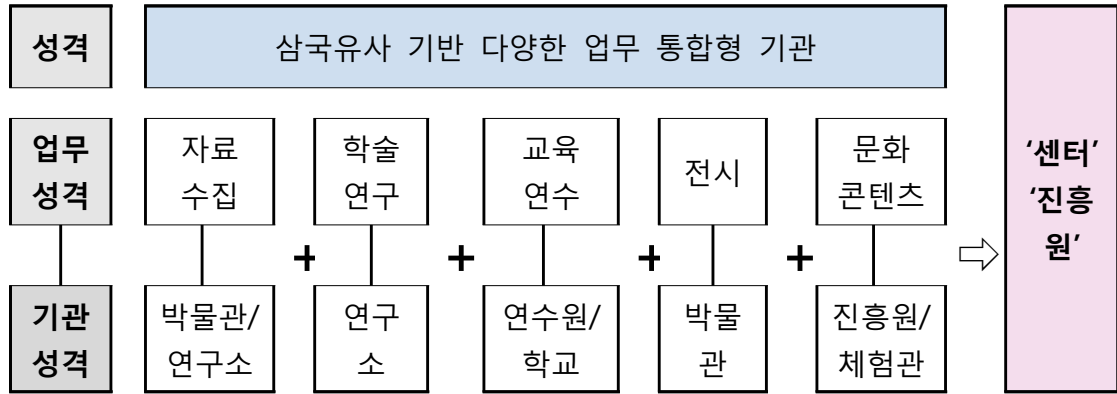
- 기관 육성법 : 법률적 근거에 의해 그 기관 육성을 명시화 하므로, 법률이 없어지지 않은 한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
- 관계법령 속에서 기관 설립을 규정 : 법률적 효과는 동일하나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관의 영속성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존재
 - ※ 기관 설립 자체 법률보다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통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
- 법령 내에서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시
- 주무부처와 정관의 근거가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서 명시

3) ‘(가칭)삼국유사 역사문화 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

가. ‘진흥원’의 업무 성격

- 삼국유사의 보존과 정리,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역사문화 진흥원’ 역할 수행
- 삼국유사 기반 한국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및 전통 기반 미래형 콘텐츠 생산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설립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전시, 문화콘텐츠 생산의 복합 업무 추진

○ 업무 성격 개념



나. '진흥원'의 주요 업무와 조직

○ 주요업무

- 삼국유사 관련 중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삼국유사 관련 기록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정체성 연구 및 관련 교육
- 삼국유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좌 운영
- 삼국유사의 가치 재발굴 및 홍보(국민적 자긍심 고취)
- 삼국유사 기반 킬러 콘텐츠 제작 및 제공
- 삼국유사 관련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체험관(단지) 운영

○ 업무에 따른 기관의 기능

- 연구소 기능, 박물관 기능, 연수원 기능, 체험관(단지)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 성격의 기관
- 기관 내 연구소와 연수원, 박물관, 체험관 등을 두며, 이를 위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부서 등을 운영

○ 업무 연계도

단위 업무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연구 및 인력양성	가치 공유 및 확산	문화산업적 활용
관련 세부 업무	수집과 보존	연구와 보급	교육과 확산	활용과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존 •자료의 정리 및 아카이브 구축 •연구 성과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삼국유사와 연계한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원 운영 •체험 전시관/박물관 운영 •삼국유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성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 스토리텔링 소스 제작 및 제공 •삼국유사 역사문화 지구 선정 및 개발 •ICT기술을 활용한 삼국유사 체험형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 VR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제작 및 보급 -AR 기반 모바일 관광 안내 프로그램 구축
필요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센터 / 교육센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박물관(전시팀) • 콘텐츠 제작 센터/ 체험관(단지) 운영팀 등 			

다. ‘전담 기관’의 위치와 규모

□ 기관 위치 선정의 고려 사항

○ 컨트롤 기능의 수월성

- 연구와 연구진흥 및 자료 수집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 자료의 보존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합한 지역
- 테마파크 및 삼국유사 관련 로드, 전시관 등을 연계하고 컨트롤 하기에 수월한 지역

○ 콘텐츠 연계성

-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나, 삼국유사 관련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 삼국유사 관련 체험이 가능한 곳이나 중요한 유적지 등, 다양한 삼국유사 관련 콘텐츠와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
- 삼국유사 관련 테마파크나 연구시설, 전시시설 등과의 연계도가 높은 지역
- 불교문화권이나 삼국유사 관련 직접 콘텐츠와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

○ 접근성

- 고속도로, 공항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거나,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지역
- 특히 체험관, 전시관, 교육 시설 등과 같이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들에 적합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 지역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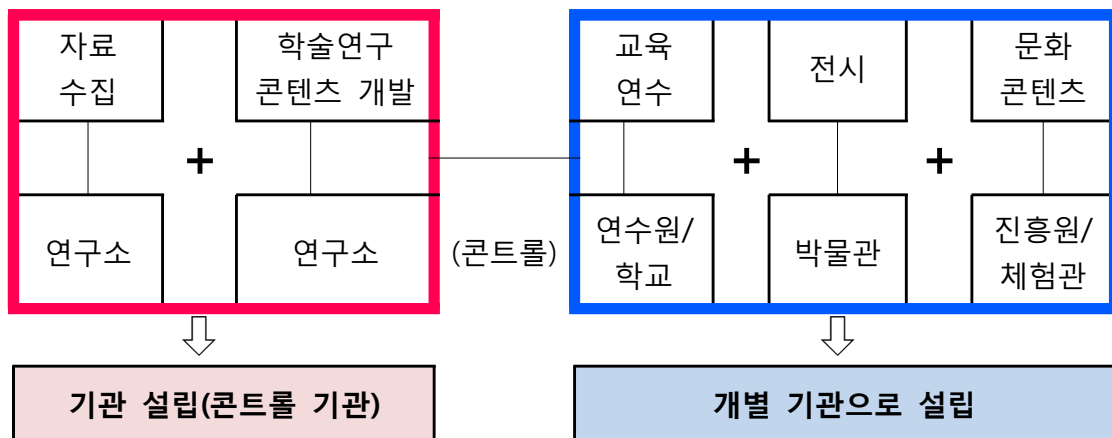
- 지역적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담기관을 통해 지역적 발전이 기대될 수 있는 지역
-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도시 보다는 중소 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한 지역
- 지자체의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삼국유사 관련 전담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발전 의지가 높은 지역

□ 기관의 규모와 조직

○ 기관의 규모

- 기관의 규모는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교육, 전시,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체험지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기관의 성격보다는 콘트롤과 통합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슬림화 하는 쪽으로 설립
- 다양한 체험지구나 전시,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의 설립은 지자체들이 역량과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담기관은 이들에 대한 콘텐츠 통일성을 담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위한 연구 및 기반조성 업무를 담당
- ‘전담기관’은 연구와 콘텐츠 개발만 담당하고, 관련 다양한 기관들의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콘트롤 기능으로 기관을 설립 : 예컨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문화관련 연구 및 콘트롤 기능만을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박물관 및 문화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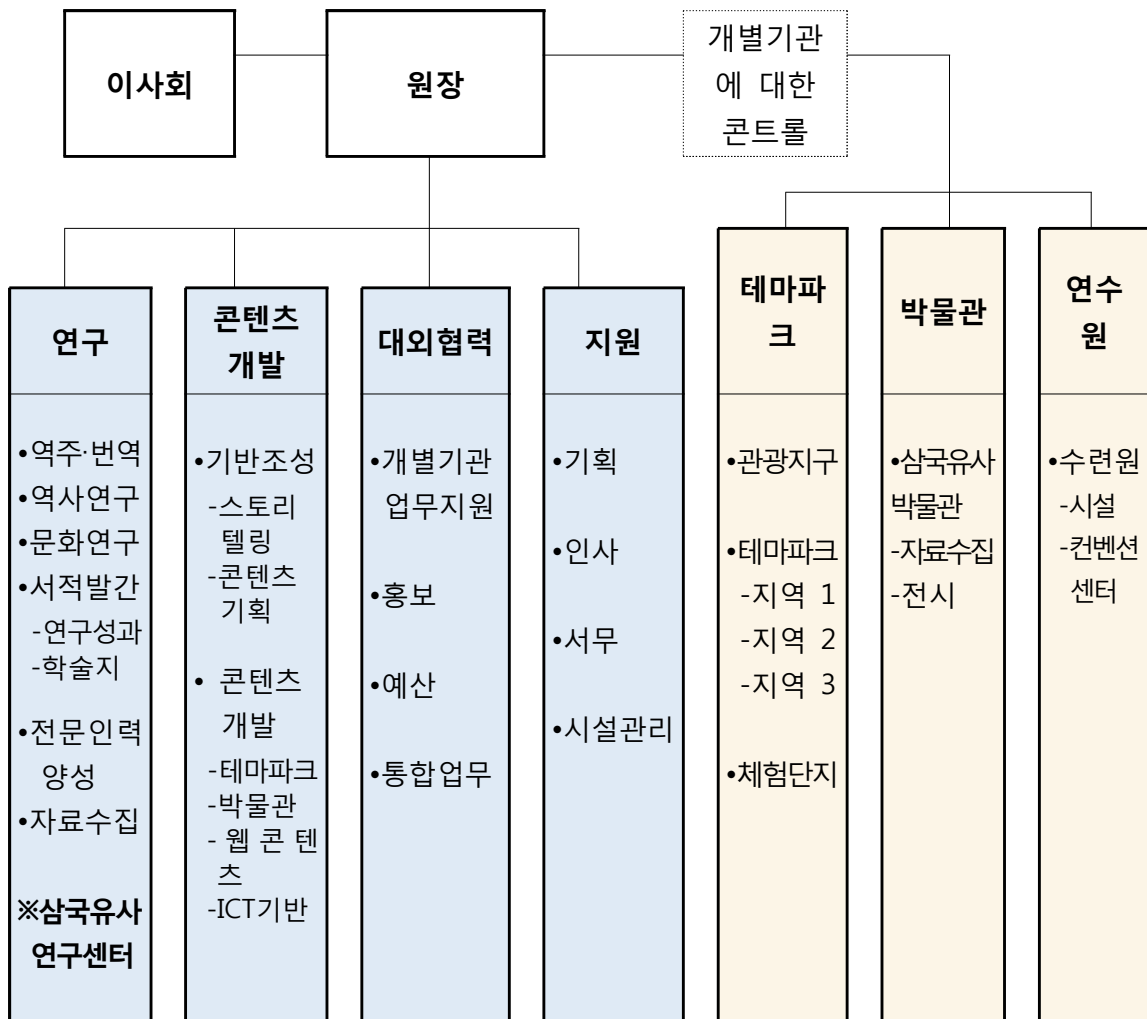
○ ‘전담기관’의 업무 영역



○ 기관의 조직

- ‘전담 기관’ 조직은 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
-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교육연수 및 전시, 콘텐츠, 테마파크 등과의 대외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서를 구성

○ 예상 조직도



※ 개별 기관 :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산하 단체 성격으로 운영

○ 기관의 필요인력

부서 직렬	연구		콘텐츠		대외협력		지원	
	최소	필요	최소	필요	최소	필요	최소	필요
연구직	20	30	10	15	2	3		
학예직	3	5			2	3		
전문직			10	15			10	20
행정직	3	5	2	5	15	20	15	30
계	26	40	22	35	19	26	25	50
총인원	최소 : 92명 / 필요 : 151명							

- 연구직은 삼국유사 및 전통문화 산업화,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된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
- 학예직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 설립에 따른 필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시설비	100,000	- 기관 본관 건물 : 50,000백만원 - 기관 부속 건물 및 수장고 등 : 50,000백만원	1회성 경비
인건비	5,520	- 최소 인원 152명 × 60백만원	연간 경비 최소인원 기준
사업비	5,000	-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 기획 및 구축 - 교육연수 사업 운영 등	연간 경비
운영비	2,000	- 건물 운영 및	연간 경비
기타	1,000	- 예비비 등	
합계	113,520		

라. ‘전담기관’의 세부 기능

○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삼국유사 관련 유형 자료 수집 : 기록물/ 문화 유산 등 유형 자산 수집
- 삼국유사 관련 무형 자료 수집 : 지역 스토리/ 삼국유사 관련 설화 및 민담 등
- 삼국유사 관련 기초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 기록물 및 스토리 등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 제공
- 삼국유사 관련 연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삼국유사 관련 연구 자료의 집적

☞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기반 아카이브 구축

○ 연구 및 인력 양성

- 삼국유사 관련 연구 아젠다 발굴 및 제공
- 삼국유사 관련 연구 진흥 기반 마련
- 고대사와 설화, 불교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 발굴
- 삼국유사 전문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활용 전문인력 양성

☞ 삼국유사 역사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활용 사업 추진

○ 가치 공유 및 확산

- 삼국유사 가치 공유를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박물관 건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양한 삼국유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좌 운영 :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 : 현대 인문가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인의 정체성 관련 교육 운영
- 고대사, 불교, 설화 및 민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 우수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및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대화와 문화산업적 활용

-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하는 장소성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 : 관광 상품화 및 지역 축제, 영상산업 등의 기반으로 작용
- 내용은 전통이지만 보여주는 방식은 ICT 기반의 현대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
- 삼국유사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문화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AR, VR을 활용한 삼국유사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웹 콘텐츠, 전시관 활용 프로그램, VR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2. 삼국유사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

1) 삼국유사 관련 기초 연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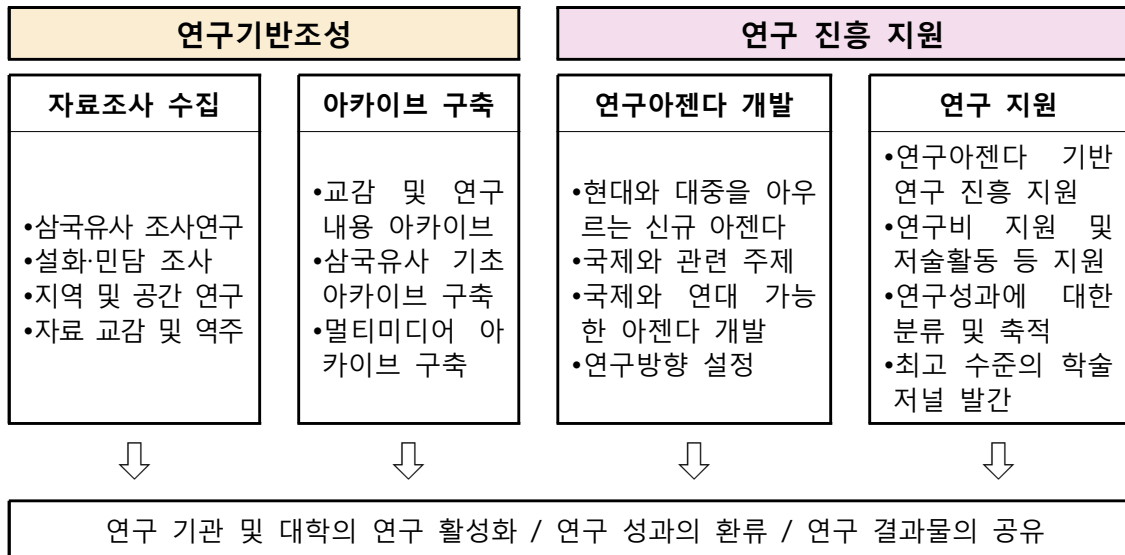
-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삼국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 연구 진행 필요
- 삼국유사 관련 중요 연구 아젠다 개발 및 세계적 수준의 가치 공유를 위한 기초 연구의 축적
- 고대사 기반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화 가능성 마련을 위한 연구 성과 축적

기초 연구의 방향

- 삼국유사 관련 자료 조사·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발간된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판본 및 교감·교열 연구
- 삼국유사에 대한 기초 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아젠다 개발 및 연구 방향 설정
- 삼국유사 관련 연구 진흥을 위한 연구 지원 및 성과 관리

※ 자체 연구보다 연구 기반 조성 및 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연구의 체계도



□ 연구의 방법 및 결과 공유

- 연구 기반 조성 :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없는 기초 자료의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 연구 진행 ⇒ 자료 수집, 교감, 역주, 아카이브 구축 일원화
- 연구 진흥 지원 : 연구 기관 및 각 대학 전문가의 연구 지원을 통해 삼국유사 관련 연구의 진흥을 유도 ⇒ 연구 아젠다 개발 및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반 마련으로의 환류

2) 삼국유사 역사 문화 콘텐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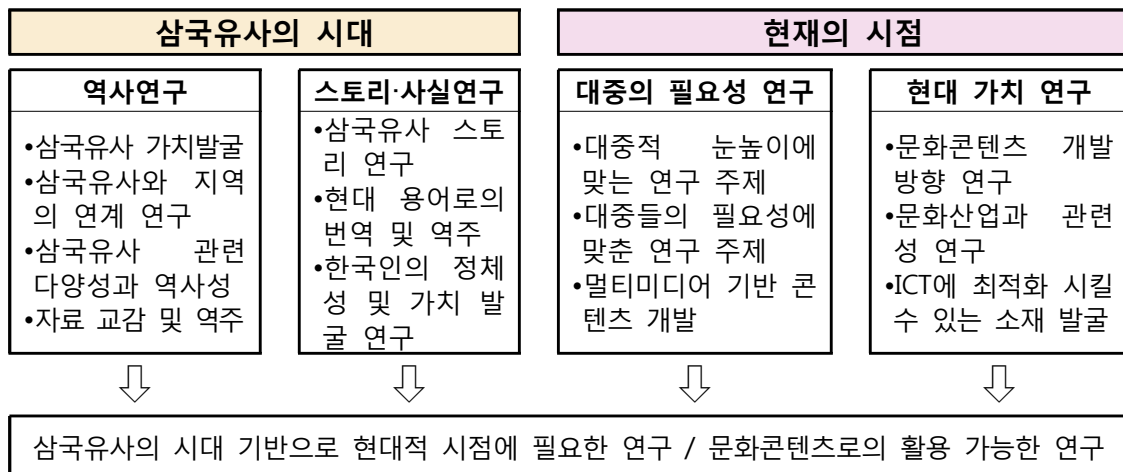
□ 필요성

- 삼국유사의 현대적 가치 발굴을 통해 현대적 공유 기반 마련 필요
-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 문화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기반의 마련이 필요

□ 기본 방향

- 삼국유사 관련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현대적 가치 발굴 및 다양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 수립
- 삼국유사의 현대적 필요성 및 그것이 가진 가치에 대한 재해석
- 시간을 삼국유사의 시점에 맞추는 연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필요성과 관점에 맞추어 연구 진행
- 새로운 가치 발굴 및 문화콘텐츠관광 산업 등에 활용 가능한 연구로의 방향 수립

□ 연구 체계도



□ 연구 방법 및 결과 공유

-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가치 재발굴 : 현대 문화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소재 및 ICT플랫폼에 최적화 될 수 있는 가능성 발굴
- 삼국유사의 현대적 활용 방안 연구 : 역사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소재 및 방향 연구

3) 삼국유사 가치 공유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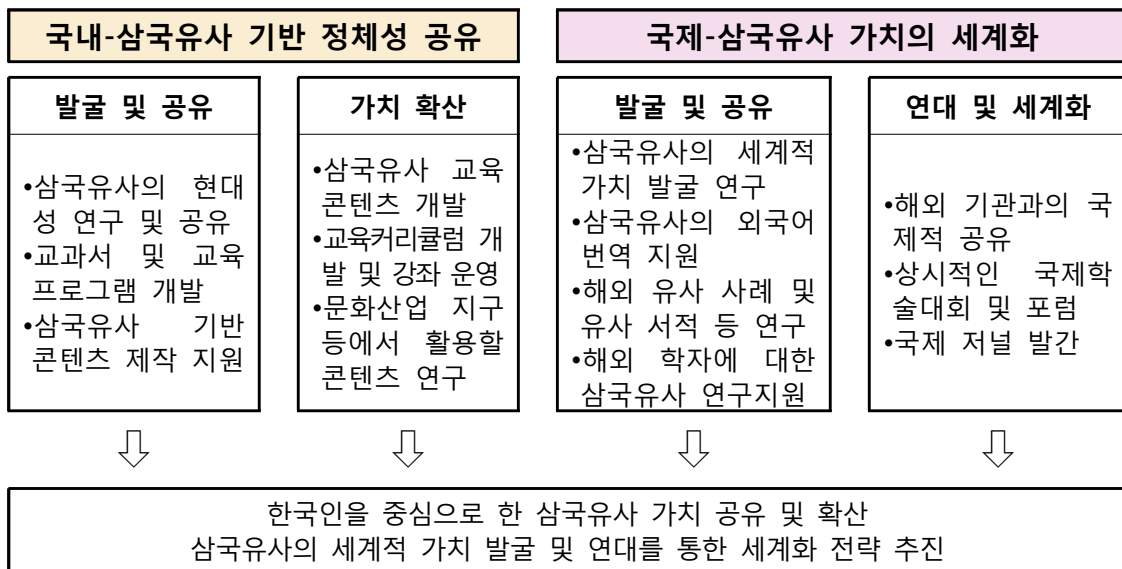
□ 필요성

- 삼국유사의 가치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삼국유사 관련 강좌 운영 필요
- 삼국유사의 콘텐츠를 실제 체험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삼국유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화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및 구체적 방법이 필요

□ 기본 방향

- 삼국유사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통해 대중적 이해도 및 관심 확산
- 삼국유사 가치에 대한 국제적 공유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지원 및 콘텐츠 확산 방안 연구
- 세계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외국 기관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 연구 체계도



□ 연구 방법 및 결과 공유

- 삼국유사의 가치를 현대화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 : 일반인 대상 대중용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삼국유사 관련 강좌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삼국유사 가치의 세계적 확산 : 삼국유사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중요 가치 발굴 연구 지원/ 해외 기관과의 국제적 공유 및 상시 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연구 진행

3. 삼국유사 미래형 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1)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지정 방안

가. 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 삼국유사 가치 확산 및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미래형 테마파크 건설 필요

○ 삼국유사의 제반 가치를 널리 시키면서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미래형 테마파크 건설이 필요

- 삼국유사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가치를 표현한 기록유산으로서 그 가치는 매우 소중함. 이에 따라 삼국유사가 집필된 군위군을 중심으로 현재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개념인 가온누리가 조성 진행 중에 있음.
- 군위 인각사가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삼국유사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대부분의 내용은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퍼져 있음. 따라서 삼국유사 콘텐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장소성을 담보한 지역의 단지 조성이 필요함.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과거 테마파크나 문화관광단지가 제공하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단지가 아니라, 기존 관광단지와는 차별화된 미래형 첨단 기술과 융합한 최신 테마파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군위군의 가온누리와는 성격을 달리 하면서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들을 체험, 관람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나. 장소의 선정

□ 내용, 관광산업적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선정

○ 삼국유사의 내용적 관련성, 관광인프라의 가능성, 관광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테마파크 장소의 선정

— 삼국유사와 관련한 장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역시 군위의 인각사임. 여기에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집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장소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음. 따라서 군위군에서 가온누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그 타당성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임.

— 그러나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집필과 관련되어서 주목되는 장소임. 삼국유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의 선정이 필요함. 여기에는 내용의 풍부함과 함께 접근성, 인지도, 공간활용성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함.

○ 먼저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전국 각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경주는 삼국유사 수록 이야기 대부분의 배경이 되고 있음 (별첨 삼국유사 내용 소재지 목록 참조)

— 한편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심지가 인지도가 높음. 그렇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 권역내에서 서울 광진구와 구리시(고구려), 서울(한성백제), 공주(웅진백제), 부여(사비백제), 경주(신라)가 인지도가 높은 곳임. 그중 경주는 삼국유사의 이야기 무대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주가 후보지로서 적절함.

— 아울러 경주는 이미 역사문화도시 등 많은 사업의 진행을 통해 대한민국 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삼국유사 문화관광 단지 장소로서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부적인 장소 및 면적 등은 추후 연구진의 실사 및 경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삼국유사 이야기의 배경장소 이면서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2)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조성 방안

가. 문화관광단지의 기본개념

□ 삼국유사 문화관광의 핵심 코어 역할

-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는 우리나라 문학, 역사, 문화의 총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체험 관광단지로서 기록 자료로서의 삼국유사는 물론,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

□ 관광자원으로서 삼국유사의 한계 극복과 외부 관광자원 네트워크 조성

- 삼국유사는 기록유산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음. 즉 박물관 전시의 대상이나 단순 읽을거리로서의 형태가 아닌, 삼국유사 속의 역동적인 우리 조상들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즐길거리로 만들어 제공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삼국유사 관련 자원에 대한 관광활동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경상북도의 중심숙박휴양거점으로 개발

□ 첨단 디지털과 접목한 체험과 놀이를 통한 종합관광자원 개발

- 삼국유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각종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삼국유사 테마로드 투어 체험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삼국유사 콘텐츠 핵심 체험 센터로 ‘오락 - 교육 - 정보’의 3대 요소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개발

나. 문화관광단지의 차별화 방안

□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원-원전략 구상

○ 삼국유사와 관련되어 앞서 진행되고 있는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차별화를 통해 양자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두 장소에 대한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원-원할 수 있도록 함

- 군위의 가온누리 테마파크는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삼국유사를 통해 한국의 신화를 재발견하고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대표적 공공인프라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화관광단지는 가온누리 테마파크와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함. 특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삼국유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의 업무를 분담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가온누리 테마파크의 경우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삼국유사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입주시킴으로써 삼국유사의 보존과 연구, 교육,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함.
- 다만, 가온누리 테마파크에서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삼국유사 콘텐츠들 가운데 삼국유사의 집필과 제작, 일연스님, 그리고 신화 및 불교신앙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현함
-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의 경우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 내의 ICT콘텐츠개발센터에서 개발된 다양한 체험형, 놀이형 콘텐츠들을 실행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함.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각종 설화를 테마별로 엮어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삼국유사의 내용과 가치를 널리 확산

시킬 수 있도록 함. 또한 군위의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연계 관광 상품화를 통해 양자간의 시너지를 유발함

- 실행콘텐츠들은 디지털 영상(미디어 아트), VR.AR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전시형, 체험형, 놀이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함 (합천 대장경테마파크의 삼국유사 코너 등 참조). 이는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과 황룡사 9층목탑의 디지털 복원 등 기왕에 진행된 경주의 디지털 헤리티지와 연계하여 경주의 또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기능적 차별화

- 가온누리 테마파크의 구성은 삼국유사 문화체험공간인 으뜸누리, 삼국유사 휴양공간인 얼쭈누리, 단군 및 일연과 문화예술콘텐츠공간인 아름누리로 구성되어 있음.
-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기능 및 역할분담을 위해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경주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만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단지의 기능은 가온누리 테마파크 가운데 삼국유사 문화체험공간인 으뜸누리, 그리고 문화예술콘텐츠공간인 아름누리의 일부와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함

3) 문화관광단지의 구성 방안

가. 문화관광단지의 구성과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간 구분

- 문화관광단지의 전체적 구성 개요는 입구 및 안내센터, 삼국유사 역사문화공원, 삼국유사 문화체험관, 휴게 및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함.

- 기본적인 공간구성 스토리텔링은 **도입부** 안내센터에서 삼국유사의 세계로 (현실을 벗어난 과거로의 여행) - **전개부** 삼국유사 역사문화공원에서는 삼국유사의 세계에 대한 지적 탐구 (삼국유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내용별 이해) - **절정부** 삼국유사 문화체험관에서는 삼국유사의 판타지적 요소를 추출한 각종 체험과 놀이 어트랙션 (재미와 아름다움 만끽) - **결말부** 휴게 및 숙박시설에서는 음식과 쇼핑과 정보 (문화 충족감을 통한 관광욕구 충족)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입구 및 안내센터는 매표소, 관광객 가이드, 관광단지 소개 및 안내(지도 포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 키오스크 등으로 구성함.
- 삼국유사 역사문화공원은 삼국유사의 체제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함.
 - 역사공간(왕력, 기이편), 불교공간(홍법, 탑상, 의해), 문학공간(신주, 감통, 피은, 효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제에 맞는 콘텐츠로 구성함.
 - 아울러 전체 공원은 자율주행의 동선을 따라 삼국유사의 각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공원 전체를 투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여 운영함.
 - 야외 극장을 두어 삼국유사와 관련된 각종 공연예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야간에는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상영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주요한 캐릭터들을 배치함으로써 역사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삼국유사 문화체험관은 실내형 테마파크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을 구성함(일본 도쿄의 조이파크 사례 참조)
 - 문화체험관은 어트랙션의 내용에 따라 인터랙티브 전시형과 가상현실형, 증강현실형, 그리고 놀이형 존을 구성하여 운영함.

- 문화체험관은 다감각 다차원 체험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함. 여기에는 사이버박물관, 입체영화관, 3D/4D영상관, 게임 등의 요소가 결합된 공간화함.
 - 디지털 가상극장, 4D 라이드 극장, 게임존, 삼국유사 타임터널 등으로 구성함.
- 휴게 및 숙박시설은 문화관광단지 주요 동선상에 휴게시설을 비치하여 휴식과 간단한 음료 및 다과의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삼국유사 관련 문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숙박시설은 문화관광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리조트형으로 할지, 민박형으로 할지 등을 추후에 결정해야 함. 숙박시설과 아울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차장임.

나. 문화관광단지의 콘텐츠 구성

입구 및 안내

- 가이드 요원(공원해설사) 배치
-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안내 키오스크 설치 (터치스크린 및 맵 출력 등)
-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휠체어, 목발, 유모차 등) 배치
- 매표소

역사문화공원

- 역사공간, 불교공간, 문학공간별 설화의 캐릭터 및 유적, 유물의 조형물과 안내판 설치 (모바일 증강현실을 통한 상세정보의 제공)
- 세부 내용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아이টে을 발굴할 필요

○ 삼국유사 투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전국의 삼국유사 관련 지역 탐방 체험

- 일반 자동차가 아닌 범퍼카 형식의 자율주행 차 (4인 가족 단위가 탑승할 수 있는 소형)
- 삼국유사 지형도를 구성하여 돌아다니는 형태로 각 지역에 도착하면 자동차의 모니터를 통해 해설을 청취하도록 구현
- 유료콘텐츠로 운영

○ 야외극장을 통해 주간 각종 공연예술과 야간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 및 루미나리에 등) 도입

- 공연예술 및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는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에서 개발

○ 삼국유사 행렬 퍼레이드

- 단지의 메인 이벤트로 정기적인 삼국유사 행렬 퍼레이드를 통해 대표 콘텐츠화
- 사전 관광객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형 퍼레이드로 개발
- 일연스님을 비롯한 삼국유사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화를 통한 각종 문화상품 파생효과

□ 문화체험관

○ 인터랙티브 전시(가상극장)

- VR을 활용한 삼국유사 관련 주요 유물유적에 대한 복원영상 및 체험 (예: 황룡사 등)
- 활용미디어 : HMD, 바이브 등

○ 4D 라이드 극장

-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상현실 3D 입체영상과 4D 라이드를 통한 실감형 극장
- 활용미디어 : 3D 입체안경, 4D 라이드 시설 등

○ 입체영상관

- 180도 서클 영상을 통한 삼국유사 관련 지역의 경관과 관련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삼국유사 테마여행 영상 체험
- 활용미디어 : 3D 입체안경, 서클영상패널

○ 게임존

- 삼국유사 이야기를 소재로 한 롤 플레이형 게임 체험
-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승려들의 계보를 파악해 보는 디지털 보드게임 등 재미요소 구현
- 활용미디어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멀티터치테이블 등

○ 삼국유사 타임터널

- 삼국유사의 역사,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들을 연대기순으로 VR을 통해 가상체험을 해볼 수 있는 터널 방식의 체험존
- 활용미디어 : HMD

4) 문화관광단지의 운영 방안

가. 문화관광단지의 운영방법

□ 운영예산의 확보

- 경상북도 예산, 해당 시 예산, 문화관광단지 자체 수입 등을 통한 확보
- 초기 단계에서는 도와 시의 예산이 절대적이며, 운영 수익발생을 통해 차츰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이전함.

□ 문화관광단지 수익사업 방안

○ 1차적 수입

- 문화관광단지 입장료 (전체 단지 입장료를 받을지, 아니면 존 별로 별도로 책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진행)
- 문화관광단지 부대시설 임대료 (휴게시설 및 매점 등을 시 자체 운영이나 위탁운영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임대료 수입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관광단지 문화상품 판매수익
- 문화관광단지 상설 공연 수익 (공연관람료는 별도 책정 필요)
- 문화관광단지 숙박시설 수익 (시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을 할지, 아니면 임대로 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함)

○ 2차적 수입

- 문화관광단지 각종 촬영장소 제공
- 문화관광단지 공연장소 제공

나. 문화관광단지의 운영주체

- 문화관광단지는 경상북도와 해당 시가 상호 협력 하에 운영함
- 직접적인 운영주체는 해당 시에서 담당하며, 해당 시에서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운영팀을 운영하고 문화관광단지를 경영함.
- 경상북도는 해당 시를 후원하며, 군위군과의 업무 조율 및 삼국유사 관련 사업의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여, 사업 예산 및 수행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증대함.

다. 문화관광단지의 운영요원

운영요원의 모집

- 해당 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삼국유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함

운영요원의 교육

- (가칭) 삼국유사 피플 아카데미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모집된 운영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 (프랑스 워뒤푸 테마파크의 아카데미 사례 참조)
- 운영요원의 역할은 단순 안내자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 어트랙션에서 관광객들의 대한 안내-해설-체험을 유인하는 배우로서의 역할임 (프랑스 워뒤푸 테마파크 아카데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사례 참조)
 - 프랑스 워뒤푸 아카데미는 워뒤푸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십여개의 어트랙션에 출연하는 전문배우를 양성하는 기관임. 물론 여기뿐 아니라 프랑스 고성 등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음.

—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안내자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관광객들과 상호교감하며 때로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이드가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운영요원을 양성해야 함. 이들을 토대로 전통문화 공연예술 배우들을 배출하는 전문기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특화 방안

가. VR·AR전용체험관의 조성

□ VR·AR전용체험관의 조직

- 조성목표는 삼국유사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객의 체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삼국유사의 가치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확산한다는 것에 있음.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첨단 문화산업을 선도하고자 함.
- 기본적인 구상은 문화관광단지 내에 삼국유사 문화체험관이라는 명칭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용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 다만, 체험관에서 적용되는 콘텐츠의 개발은 군위군 가온누리 테마파크 내의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 내에 설치될 ICT문화콘텐츠센터에서 담당함.
- ICT문화콘텐츠센터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토대로 ICT 활용 콘텐츠의 소재를 발굴, 개발, 제작하는 기획과 제작처로서 기능함.
 - 기존 가온누리 삼국유사문화콘텐츠센터와 통합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함.

-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관은 경주 문화관광단지 내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함.
 - 경주에 이미 석굴암, 황룡사지, 신라 왕경 등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들과 상호 연계하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함.
 - 군위에는 삼국유사박물관 내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한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콘텐츠로 활용함.

□ VR·AR전용체험관의 구성

- 체험관의 구성은 디지털 가상극장과 3D/4D 라이드 극장, 입체영상관, 삼국유사 타임터널, 디지털보드게임 존으로 구성함.
- 디지털 가상극장에서는 삼국유사 설화내용에서 추출한 주요 문화유산의 복원모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체험을 위주로 운영함
 - 예: 국내 황룡사 복원 영상, 석굴암 복원 영상(세종시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불국사 복원 영상 등
- 3D/4D 라이드극장에서는 삼국유사 설화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가상현실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함.
 - 예: 미 버지니아대학 주도 Rome Reborn과 같은 영상
- 입체영상관에서는 180도 서클 영상을 통해 삼국유사가 배경으로 한 다양한 경관의 모습을 연출하며,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 상영함.
 - 예 : 안면도 유라기박물관 미디어영상관 씨클 비전 (유라기 3D)
- 삼국유사 타임터널은 복도형 공간으로 HMD를 사용하여 복도를 지나가면서 삼국유사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함.

— 예 : 펍시콜라 타임터널 프로모션

- 디지털보드게임 존은 삼국유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전략형 소재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게임을 통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 예 : pandemic board game

나. 삼국유사테마로드맵의 구성

전국 삼국유사테마로드맵 제작

- 삼국유사와 관련된 전국의 유적지를 몇 개의 테마 로드를 구성하여 이를 가상의 지도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함

— 예 : 일본 교토 시구레덴 닌텐도DS를 활용한 교토 맵 투어 체험

— 삼국유사 일연테마로드, 의상테마로드 등 인물 테마로드, 불탑 테마로드, 불상테마로드, 사찰 테마로드 등 불교 테마로드 등 삼국유사에 수록된 각종 문화유산을 테마로 묶어서 테마로드화

자율주행 어트랙션의 적용

- 각 테마로드는 자율주행 어트랙션을 구현하여, 관람객이 각각의 테마로드를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함

— 예 : 일본 오카야마 디지털뮤지엄의 오카야마 가상투어 체험

다. 실경뮤지컬의 운영

- 역사문화공원 내 실경무대를 배경으로 한 실경뮤지컬의 제작을 통해 삼국유사와 관련된 장소성 효과를 극대화시킴

- 삼국유사의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뮤지컬을 기획하여 공연함으로써 경주라는 삼국유사의 상징적 공간과 아울러 삼국유사 속의 역사문화를 관람객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
 - 예 : 프랑스 뷔뒤푸테마파크의 씨네쎄니, 중국 서안 화청지의 장한가 등 인상시리즈
 - 단일 뮤지컬이 아닌 여러 뮤지컬을 번갈아가면 공연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으로 제작
 - 출연배우들은 삼국유사 아카데미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지역주민 및 전문배우들을 캐스팅하여 지역문화로서의 효과도 극대화

라. 캐릭터동산의 운영

□ 삼국유사 캐릭터 동산 기획 운영

-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들, 역사인물, 승려, 일반백성 등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역사문화공원에 비치함으로써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
 - 캐릭터 동산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증강현실 (AR)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캐릭터를 비출 때 관련 설화에 대한 설명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보여줌으로써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

마. 삼국유사 퍼레이드의 운영

□ 문화관광단지의 대표적인 킬러콘텐츠로 삼국유사 퍼레이드 운영

-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들을 총집합한 퍼레이드를 운영함으로써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의 대표적 콘텐츠화

- 예 :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한국 서울 롯데월드, 한국 용인 에버랜드 등
- 삼국유사 퍼레이드는 이벤트 형식으로 벌어지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형 이벤트로 운영

6) 미래형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활용 방안

가. 기존 경주권 문화관광 단지와의 연계

□ 기존 경주권 문화관광단지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

○ 삼국유사에서 가장 이야기 소재가 풍부한 경주지역을 중점으로 관광 대상지역화하여 경주 보문단지, 불국사 권역, 시내 권역 등 기존 경주권 문화관광단지와의 콘텐츠 연계를 통한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도모

- 기존 휴양권역, 불교권역, 신라역사권역 등과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하여 마케팅
- 특히 삼국유사 문화관광단지는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문화 테마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오락형, 체험형으로 기존 관광단지와 성격을 차별화함
- 기존 관광단지 내 존재하는 석굴암 HMD 트래블, 황룡사 9층목탑 복원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과 상호 연계 마케팅을 통해 시너지를 도모
- 경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 활동 진행

나. 경북권 문화관광 연계

□ 기존 경북권 문화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 경주 뿐 아니라 3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권역을 설정하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기존 3대 문화권 가운데 삼국유사와 관련이 깊은 화랑문화권과의 연계 관광프로그램화
 - 군위군에서 추진중인 가온누리 테마파크와의 주제 및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 경북내 삼국유사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삼국유사 테마로드를 기획하여 문화관광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도모
 - 경북내 여행사와의 협약을 통해 삼국유사 테마로드형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다. 미래형 문화관광단지로서의 입지 구축

□ 미래형 문화관광단지로서의 정체성 확립

- 전국에서 유일한 미래형 융합 문화관광단지로서의 정체성 강화
 - 기존의 국내외 테마파크들의 장점을 구현하고, 첨단 ICT 기술과 융합된 미래형 콘텐츠들을 모두 망라한 복합 테마파크를 구축하여 관광단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문화관광의 킬러콘텐츠인 퍼레이드, 공연예술, 테마공원 조성 등과 아울러 체험 효과를 부가한 ICT 결합 체험형 콘텐츠들을 통해 관광효과 극대화
 - 자율주행, VR, AR, 4D 입체영상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로 미래형 테마파크로서의 입지를 강화함.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회기구 구상

1) 삼국유사 이야기 현장 현황

가. 삼국유사 이야기 소재지 현황

삼국유사 기사 관련 지역 현황

<표 4> 삼국유사 관련 기사·유적 소재지 분석

분류	시도명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계
		기사 소재 분포	개소	6	11	62	2	9	1	1	3	3	4	6
	점유율 (%)	5.5	10.0	56.4	1.8	8.2	0.9	0.9	2.7	2.7	3.6	5.5	1.8	100
관련 유적 분포	개소	9	14	71	4	1	1	5	1	1	6	13	2	128
	점유율 %	7.0	10.9	55.5	3.1	0.8	0.8	3.9	0.8	0.8	4.7	10.2	1.6	100

(기사·유적 분포의 상세 내용은 11쪽 <표 1> 및 15쪽 <표 2> 참조)

○ 삼국유사 이야기 소재지는 거의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음.

- 그 가운데 경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주요한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북,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시 등 중부권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는 이들 7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역사문화벨트의 주체는 가장 많은 분포와 삼국유사의 저자와 저술이 이루어진 경북이 되어야 함.

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범위

□ 삼국유사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포괄하는 지역

○ 삼국유사의 저작 및 인쇄, 배포와 관련된 장소

— 삼국유사 저작 장소인 경북 군위군 인각사

— 삼국유사 인출 장소 (감영 등)

○ 삼국유사의 저자와 관련된 장소

— 삼국유사 저자인 일연의 출가과 관련된 장소 (속초 진전사 등)

— 일연의 수행과 관련된 장소

○ 삼국유사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

— 삼국유사 설화의 공간적 배경 장소

— 삼국유사 설화 속의 인물들과 관련된 장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존재하는 장소) 등 포함

2)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구성 방안

가.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개요

□ 삼국유사 관련 지역을 포괄하는 협의기구 필요

○ 삼국유사 속의 장소들을 총괄하면서 삼국유사 관련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삼국유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지자체의 협의기구 구성

— 예 : 독일 고성가도 조합, 메르헨가도 조합, 로만틱가도 조합 등

— 독일 고성가도의 경우 만하임에서 체코 프라하에 이르는 1,000km의 연계망을 “고성가도 Burgen Strasse” 라고 이

름하고 이 연계망 속의 각종 지자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운영하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1표를 행사하며, 고성가도의 공동 프로모션과 각자의 축제이벤트에 고성가도와 관련된 로고, 문화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경우에는 상위 주 단위의 협의, 그 위의 연방공화국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조합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위반할 경우 고성가도 조합에서 탈퇴 조치하고 고성가도와 관련된 어떠한 프로모션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삼국유사 관련 사업의 전국적 시행 총괄 기구의 필요

○ 삼국유사 관련 이야기의 분포는 전국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촉진하고 경북 군위와 경주의 삼국유사 핵심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총괄 기구가 필요함

— 신속한 의사결정, 원활한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효과의 촉진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 : 독일 고성가도의 홍보지 (년간)

— 독일 고성가도 홍보지의 경우 연간계획을 조합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특히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홍보함으로써 고성가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음. 이는 어느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고성가도 전체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구성 방안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체 구성

○ 삼국유사의 관련 장소를 포괄하는 범지자체적 협의체 구성

— 경북을 중심으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의 문화관광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의장은 경북으로 하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협력기구로 구성

다.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의기구 운영 방안

□ 경북 중심의 협의기구 운영

-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북이 협의기구의 의장이 되어 운영

- 기타 지자체들은 모두 협의기구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삼국유사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운영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에서 국비 및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협의기구 참여 지자체들이 모두 동등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단, 의장인 경북의 경우 각종 콘텐츠 기획, 제작, 개발, 보급을 주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의 의무가 있음)
- 협의기구의 각 대표자는 지자체 단체장과 문화관광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지자체별로 실무위원을 2명씩 임명하여 운영함.

□ 협의기구 운영규정의 마련

- 역사문화벨트 협의기구에 속한 지자체들이 준수해야 할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

- 지자체 간, 부서 간 협의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사업수행 중에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방안

가.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개요

□ 삼국유사와 관련된 장소들을 관광루트화하기 위한 벨트를 구성

○ 삼국유사와 관련된 장소들을 여러개의 루트로 묶어서 주제를 가진 문화관광이 가능하도록 역사문화벨트화함

— 역사문화벨트화를 통해 삼국유사의 가치를 고루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

— 삼국유사와 관련해 산재한 유적 유물들을 국민들이 고루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구성 방안

□ 삼국유사의 개별적인 장소를 벨트화하는 관광루트를 조성

○ 삼국유사 관련 지역의 주요 도로망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조성

— 삼국유사와 관련된 주요 지역들을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해당 권역을 벨트화함

— 삼국유사 유적 유물이 남아있는 장소를 거점화하여 삼국유사와 관련된 문화관광정보를 제공함

□ 문화관광벨트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삼국유사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뚜렷히 해야 함

— 이를 위해 접근성 위주로 벨트를 구성함

— 1루트로는 경상북도 권역 내의 군위와 경주를 묶는 루트

— 2루트로는 충청남도과 대전, 세종시, 전라북도를 묶는 루트

- 3루트로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묶는 루트로 구성함
- 각 루트 내에서는 삼국유사와 관련된 소재를 주제별로 묶은 테마로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운영 방안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BI 개발

○ 삼국유사 프로모션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를 표현하고, 삼국유사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
- 예 : 독일 고성가도, 로만틱가도의 BI 등
- BI는 벨트 안의 유적지 표식 및 안내판, 안내책자, 안내소, 문화상품의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
- BI 개발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심사는 역사문화벨트 위원들이 진행하도록 함.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진흥 TFT 운영

○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TFT 운영

- 참여 지자체의 문화관광 담당부서의 과장과 주무관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TFT를 운영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의 관광정책과 공동 프로모션 등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구로서 기능
- 역사문화벨트 내 지자체들의 각종 축제 이벤트 등과 연계하는 사업내역의 확정 및 집행 기능
-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된 예산 등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구축 방안

가.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개요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기본방향

- 삼국유사의 개괄적인 내용, 해당 지역 유적유물과 관련된 삼국유사 관련 이야기, 유적유물 자체에 대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 공함
 - 유적유물과 관련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이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의 BI 홍보 마케팅을 통해 삼국유사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함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BI를 중심으로 각종 표식과 안내 등을 진행함으로써 삼국유사와 관련된 장소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구성 방안

□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개발 방침

- 역사문화벨트 콘텐츠는 크게 지역 유적유물, 지역 유적유물과 관련된 이야기, 삼국유사 일반에 관한 콘텐츠 등으로 구성됨
 - 역사문화벨트 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유적유물이 위치한 장소성임. 따라서 지역 유적유물에 관한 콘텐츠를 우선시함
 - 단순한 지역 유적유물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장기적인 기억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삼국유사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부가정보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역사문화벨트 콘텐츠의 개발

-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의 콘텐츠 개발 담당부서에서 개발
 - 삼국유사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 진흥원의 콘텐츠 개발 담당부서에서 역사문화벨트 상의 삼국유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함
 -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지역 유적유물과 관련된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여 (가칭) 진흥원의 콘텐츠와 결합하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를 제공함.

□ 역사문화벨트 삼국유사 콘텐츠의 구성

- 역사문화벨트 상 지역 유적유물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 역사문화벨트 소속 지자체에 소재한 삼국유사 관련 유적유물에 대한 콘텐츠 개발
 - 주요 유적유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개발한 콘텐츠들이 존재함. 기 개발 콘텐츠를 삼국유사와 접목시켜서 개발
 - 예 : 전북 김제 금산사, 충북 보은 범주사 등
- 지역 유적유물과 관련된 삼국유사 이야기 콘텐츠
 - 지역 유적유물 자체에 대한 콘텐츠 뿐 아니라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함
 - 해당 지자체의 기 개발 콘텐츠는 삼국유사 전체 차원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신규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 예 : 충남 부여 왕흥사 (홍법 법왕금살), 강원 평창 월정사 (탑상 대산월정사오류성중) 등

○ 삼국유사의 개괄적인 콘텐츠

- 삼국유사의 저술, 인쇄, 전승과 관련된 개괄적인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제공함
- 지역 유적유물과 이야기 등은 삼국유사라는 기록문화유산의 산물이므로 삼국유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함
- 예 : 삼국유사 문화지도., 삼국유사와 일연, 일연의 일대기, 삼국유사의 간행과 배포 등

다.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콘텐츠 운영 방안

□ 홍보 마케팅 다양화

○ 인쇄물

- 지역 유적유물과 관련된 안내 책자, 홍보물 등 제작 배포
- 삼국유사 문화지도 등 제작 배포

○ 안내표지판

- 삼국유사, 지역 유적유물과 스토리가 담긴 설명안내판 제작 설치
- 지역 유적유물 안내표지판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BI 수록)

○ 소셜네트워크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소셜네트워크 계정 운영 및 각종 홍보자료 게재를 통한 홍보 마케팅

○ 찾아가는 삼국유사박물관

- 이동식 삼국유사박물관 운영(버스)을 통한 홍보마케팅
- 가상현실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 시설 구비 및 삼국유사 관련 내용 전시

□ 콘텐츠 운영

○ 삼국유사 간행물 판매

- 삼국유사와 관련된 그림책, 동화책, 설화집, 연구서, 문화유산 안내서 등 책자 판매

○ 삼국유사 문화상품 판매

- 삼국유사와 관련된 캐릭터, 불상, 불탑 등 피규어, 미니어처 등 3D 프린팅 제품 판매
- 삼국유사 설화에 나오는 각종 도구 등 문화상품 제작 판매
- 입체안경과 팝업북 등 신규 문화상품 제작 판매

○ 삼국유사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삼국유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사문화벨트 관련 콘텐츠들을 수록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 운영
- 역사문화벨트 관련 관광프로그램 안내 및 예약 등 운영
- 삼국유사 이야기 배포 지역의 축제 이벤트 등 안내 및 예약

○ 지역 축제를 통한 삼국유사 콘텐츠 연계 운영

- 지역의 축제 이벤트를 활용하여 삼국유사 콘텐츠를 연계
- 예 : 충남 부여 서동축제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방안

가.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개요

□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방침

○ 관련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형평성 적용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는 여러 지자체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또한 특정 지자체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TFT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협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여기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 상위의 협의결정이 필요함 (향후 논의 필요)
- 예 : 독일 고성가도 조합의 1단체 1표 원칙

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문화관광 활용 방향

□ 삼국유사 기반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 삼국유사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삼국유사 관련 유적지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각 지자체별로 창업여행사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여 각 지자체에서 출발하는 삼국유사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
- 각 지자체별로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함

□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로 진행되는 축제와의 연계 활용

- 지자체별로 되는 축제 가운데 역사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국유사 관련 프로그램을 삽입 활용함으로써 삼국유사 가치 확산에 기여

- 특히 삼국유사 설화 및 유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축제 및 이벤트를 1차적인 연계 대상으로 함
- 이와 관련해서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에서 개발되는 공연예술 콘텐츠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관람객 유입 효과 기대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협약기구 사업 방안

1) 삼국유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가. 삼국유사 문화유산 보호

삼국유사 유적유물에 대한 공동 보호활동

삼국유사의 날 유적유물 공동 보호활동

- 삼국유사의 날, 또는 일연의 날 제정 및 전국적인 삼국유사 유적유물 보호 이벤트 진행

나. 삼국유사 문화유산 관리

삼국유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활동

삼국유사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 내 삼국유사 디지털아카이브 센터의 아카이브 구축
- 역사문화벨트 소속 지자체의 삼국유사 관련 자료의 집적 및 관리
- 삼국유사 문화유산의 3D 스캔 및 3D 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삼국유사 데이터의 구축

삼국유사 관련 저작권 보호 관리 활동

-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가칭) 삼국유사역사문화진흥원 내 삼국유사와 관련된 콘텐츠들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 활동 전개
- 라이선스, 머천다이즈 등 다양한 저작권 활용 방안 수립 및 관리
- 삼국유사 상품화를 통한 수익의 관리 및 분배 업무 진행

2)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 삼국유사 기반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추진

□ 삼국유사 문화예술 창작촌 개발

○ 청년 문화예술 창작집단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촌 개발

- 지역의 폐허, 유휴공간시설을 활용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문화예술 창작집단을 육성함
-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집단을 육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함
- 청년 문화예술 집단 등의 원활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써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나. 삼국유사 기반 역사문화 진흥 사업 추진

□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 사업

○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

- 지역 소재 대학의 인문, 예술, ICT 전공과의 협업을 통해 삼국유사에 기반한 신문화콘텐츠 개발 추진
- 인문학 전공에서는 삼국유사의 가치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소설 및 문예창작, 가치가 내포된 문화상품 개발
- 예술 전공에서는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각종 공연 예술, 사진, 회화 등 문화콘텐츠 개발
- ICT 전공에서는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삼국유사의 다양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삼국유사 역사문화 진흥
- 아울러 융복합 환경에서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3) 삼국유사 공동 문화상품 개발 및 콘텐츠 개발 방안

가. 문화상품 개발

삼국유사 기반 문화상품 개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삼국유사 문화상품 개발

- 지역적으로 특색을 갖고 있는 삼국유사 문화상품 개발과 역사문화벨트 상의 문화상점을 통한 공동 판매를 통해 전국적인 삼국유사 문화상품 확산
- 문화상품은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상품을 우선적으로 함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 기존의 단편적인 문화상품 이외에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 불교와 관련된 탑, 불상 등과 다양한 캐릭터 등을 상품화
- 불탑, 불상 등은 조립식 키트로 개발
- 아울러 나노블록 등 현재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상품군을 발굴하여 개발

나. 협의체 문화유산과 삼국유사의 연계 활용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의 활발한 연계 활용 추진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의 연계

- 삼국유사 왕력편과 기이편에 해당하는 한국고대사의 제반 역사적 사실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유산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기대

-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의 연계
 -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시간적으로 고대사-근대사에 이르는 문화유산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불교 문화유산과의 연계
 - 지역의 불교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삼국유사 속의 불교와 지역 전래 불교와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확인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기록 문화유산과의 연계
 - 지역의 기록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고려시대 기록문화,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
- 설화 문학유산과의 연계
 - 삼국유사가 풍부한 설화문학 자료임을 감안하여 지역의 다양한 설화문학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이를 문화관광자원화함

4)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공동 사업 방안

가. 삼국유사 창작소재 공모전 공동 시행

- 기간 : 매년 상반기 중 공고, 하반기 마감 및 심사
 -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날에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도 방법임. 조정이 필요함(예를 들어 8월 10일 기일)
- 대상 : 전국의 대학생 이상 (대학원생, 일반인 포함)
 - 예비창작자 및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들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킴

개최방식 : 매년 지자체별로 순번제로 주관

- 해당 지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재를 창작대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히 할 수 있는 효과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 제작 투자 연결을 통해 실제 상용콘텐츠화함으로써 문화산업 현장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윈-윈함

기대효과

-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 각종 콘텐츠 수출을 통해 삼국유사에 기반한 신한류콘텐츠 활성화 기대

나. 삼국유사 소재 기반 실경뮤지컬 공동 제작

개요

- 여러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실경뮤지컬을 제작하여 상설 공연화함

내용

- 삼국유사에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경승지 내지 실경뮤지컬이 가능한 배경을 대상으로 뮤지컬화가 가능한 스토리를 발굴함
- 전문뮤지컬 배우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배우로 직접 참여하는 뮤지컬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상설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관객들이 찾는 뮤지컬을 제작

- 예 : 중국 리장(인상려강), 중국 서안(장한가), 프랑스 뒤퐁푸(씨네씨니)

제작비용의 부담

- 국고 지원 내지 정부기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대효과

-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 지역공연예술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획득

다. 삼국유사 전자지도 공동 제작

개요

- 삼국유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은 전자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콘텐츠에 활용함으로써 삼국유사 홍보는 물론, 문화관광 파급효과를 도모함

내용

- 삼국유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자지도 상에 표시하고, 해당 상세정보를 연계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공간-이야기의 입체적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지도 제작
- 삼국유사 이야기의 소재지가 아닌, 인물-사건-배경 정보 등을 총망라하여 한번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
- 지자체 및 콘텐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제작용 파일과 전자지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함.

제작비용의 부담

- 국고 지원 내지 정부기관 재원 활용

기대효과

- 삼국유사 정보 제공 및 이를 통한 방문 유도 효과
- 삼국유사 전자지도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콘텐츠 파생 효과

라. 삼국유사 VR/AR 콘텐츠 제작

개요

- 삼국유사와 관련되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가능한 아이템을 추출해서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각종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에 활용

내용

- 삼국유사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 콘텐츠로 제작함
- 예를 들어 황룡사 9층목탑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상현실 콘텐츠로 구축하여 체험이 가능하고, 아울러 황룡사터 현장에서는 디바이스를 활용한 증강현실을 통해 생생한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삼국유사 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

제작비용의 부담

- 국고 지원 내지 정부기관 자원 활용 (모바일 어플 기능은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능함)

기대효과

- 삼국유사와 관련된 문화유산 등의 정보 제공 및 가상체험

마. 삼국유사 드론투어 콘텐츠 공동 개발

개요

- 삼국유사 지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소재한 위치에 드론을 날려 해당 장소의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내용

- 실내 드론장을 꾸며 삼국유사 지도 위에 드론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게함으로써 드론의 재미와 고화질 영상과 삼국유사 정보의 제공을 동시에 진행함
- 특정 인물, 특정 사건, 특정 사상 등에 대한 사전 미션 부여를 통해 직접 해당장소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게이미피케이션 효과를 배가함

제작비용의 부담

- 국고 지원 내지 정부기관 재원 활용

기대효과

-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기술과 문화유산 정보를 결합한 첨단 미디어의 구축 효과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기구 구체사업 예시

가. 삼국유사와 함께 하는 템플 스테이

사업 방향

- 삼국유사와 관련된 사찰들을 연계하여, 삼국유사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템플 스테이 시행

- 템플 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걷어내고 삼국유사라는 주제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비종교인도 참여 가능한 템플 스테이로 구현
- 삼국유사와 관련된 주제와 체험 동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

□ 운영 콘텐츠 구상

- 템플 스테이의 기존 프로그램에 삼국유사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진행
- 예)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군위 인각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구상

구분	내용
템플스테이 기본 프로그램	-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참선 프로그램 - 108배 체험, 타종행사 체험 -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
삼국유사 특별 프로그램	- 삼국유사 집필공간 둘러보기 - 지역 삼국유사 관련 전시 관람 - 삼국유사 목판 인출 체험 - 대장경과 전통 제책의 이해 등

□ 운영 주체

- 프로그램 개발 : 삼국유사 템플 스테이 협의체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담기관’ 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 운영 주체 : 삼국유사 템플 스테이 협의체 가입 사찰
- 사업 대상 : 교육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템플 스테이 팀

나. 삼국유사와 만나는 21세기 판타지 박람회

□ 사업 방향

-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전통 기반의 판타지 장르 박람회 개최
- 현재에도 통용 가능한 다양한 설화와 민담 등 판타지적 요소를 가진 것을 바탕으로, 21세기에도 통용 가능한 판타지 박람회 개최
- 삼국유사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
- 삼국유사를 ‘판타지’라는 관점에서 봄으로써, 한국의 판타지 산업계를 정리하고 다음 한 해를 조망할 수 있는 박람회로 개최

□ 운영 콘텐츠 구상

- 개최 일정 : 1년차에는 2박 3일 정도로 개최 후, 1주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상
- 학술대회, 포럼, 전시, 영화 상영 등과 같은 복합적인 박람회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구상
- 예) 영화상영이 가능한 공간과 포럼 공간, 전시 공간 등을 함께 구상하여 다양한 섹션과 콘텐츠로 한국의 판타지 산업을 규정하고 새로운 가능성 제고
- 박람회 초청 콘텐츠 예시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삼국유사 관련 생산된 다양한 출판물 등의 전시 및 할인판매• ‘전담기관’ 등을 통해 생산된 삼국유사 관련 콘텐츠의 전시• 판타지를 기반의 게임에 대한 전시 및 홍보부스 마련
----	---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관련 학계와 공동으로 당해 판타지 콘텐츠 포럼 개최 • 당해 삼국유사 및 판타지 관련 콘텐츠 동향 정리 및 차년도 전망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중요 판타지 물에 대한 영상 상영(영화를 중심으로) •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삼국유사 및 판타지 관련 영상물을 엄선하여 상영

운영 주체

- 박람회 운영 :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박람회 운영 기획 및 진행

다. 삼국유사 관련 교육 아카데미

사업 방향

-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의 근원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삼국유사의 의미와 가치를 공무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유적과 콘텐츠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유도함
- 삼국유사의 설화를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 교육, 관광 사업 등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음

운영 콘텐츠 구상

- 기간은 분기별로 기획. 1~2주 간격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매 분기가 끝날 때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현장 강의 시행
- 1차: 개별 지역 중심의 지역 중심 강연 진행, 2차: 지역을 넘어서는 연합 강연회를 진행 (지역민 문화 관광 교류 행사 병행)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일선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같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관심 확산

□ 운영주체

- (가칭) 삼국유사아카데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강좌를 개발 보급
- 각 지역의 문화원,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대학과 박물관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

〈표 5〉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사업화 계획 요약

3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관련 페이지
삼국유사 콘텐츠 육성 기반 조성	국가주도 전담기관 설립	문화산업기반	삼국유사 역사문화 진흥원(가칭) 설립	연구, 교육, 전시, 콘텐츠생산·관리 등 삼국유사 진흥 관련업무 통합전문기관 설립	59~72
	삼국유사 기초연구 추진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삼국유사 자료수집, 교감 등 관련 기초연구 자료 멀티미디어 아카이브 구축	73~74, 107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번역 및 역주 지원	삼국유사 원문 현대 용어로 국역 및 주석 작업	74~76
	삼국유사 콘텐츠 연구 추진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현대적 활용 방안 등 연구 (지역대학 연계 등)	75~76, 108
	삼국유사 가치 공유 및 확산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교육 및 홍보 아카데미 운영	삼국유사 국내외 선양을 위해 의미, 가치, 내용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76, 77, 117, 118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외국어 번역 지원	삼국유사 원문 외국어 번역 지원	76, 77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해외연구지원	해외 학자 삼국유사 연구활동 지원	76, 77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삼국유사 세계화를 위한 학술행사 개최	76, 77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 국제 학술저널 발간	삼국유사 세계화를 위한 국제 수준 학술연구 전문지 발간	76, 77
	삼국유사 미래형 문화관광단지 조성	문화관광단지 구성	관광자원개발	삼국유사 역사문화공원 조성	스토리, 인물, 지역 등 삼국유사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의 공간 조성
관광자원개발			삼국유사 문화체험관 조성	삼국유사 소재를 활용, 다양한 미래형 VR/AR 전용 체험관 조성	83~86, 89~91

3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관련 페이지
삼국유사 미래형 문화관광단지 구성	문화관광단지 특화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캐릭터 동산 운영	삼국유사 등장인물 등 캐릭터 개발 및 제작	84, 92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로드 자율주행 어트랙션 운영	관광단지 내 자율주행 테마로드 체험프로그램 구성·운영	85, 91
		문화예술창작	삼국유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뮤지컬, 미디어 파사드 등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운영	85, 91, 92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 퍼레이드 운영	문화관광단지 대표 콘텐츠로 관광객 참여형 퍼레이드 개발·운영	85, 92, 93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 디지털 가상극장 운영	삼국유사 관련 문화유산 복원 등을 소재로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85~86, 90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 3D/4D 입체영상관 운영	삼국유사 테마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 가상영상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6, 90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스토리 게임존 운영	삼국유사 이야기를 소재로 디지털 등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운영	86, 91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타임터널 운영	삼국유사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상체험 할 수 있는 터널방식 구간 운영	86, 90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로드맵 제작	삼국유사 테마로드 지도상 가상여행 프로그램 개발·운영	91
		문화관광단지 활용	관광콘텐츠관리	지역내 기존 문화관광단지 연계	지역 내 기존 관광단지 등 다른 문화관광단지 및 콘텐츠와 연계 방안 구축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협업체 구성	전국적 사업시행 협업체 구성	문화산업기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관련 지역을 포괄 하는 범지자체적 총괄 협의기구 발족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실무진(TFT) 구성·운영 등)	95~100

3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관련 페이지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협약체 구성	홍보 마케팅 다양화	문화산업기반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홍보 마케팅	홍보용 인쇄물·간행물·문화상품 제작 활용, 관련 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SNS 운영, 이 동식 삼국유사 가상체험 전시박물관(버스) 운영 등	103, 104
	지역별 관광콘텐츠 연계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별 삼국유사 관련 유적지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105
		관광콘텐츠관리	지역별 삼국유사 관련 축제 연계 활용	지역별 기존 삼국유사 관련 축제에 신규 개발 한 콘텐츠를 보강해서 삼국유사 가치 확산	105, 106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문화유산관리	삼국유사의 날 유적유물 공동 보호	삼국유사의 날 등 특정일 지정, 전국 범위 삼국 유사 유적유물 보호 이벤트 진행	107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관련 저작권 관리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관리 및 활용	107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문화예술창작	삼국유사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청년 문화예술 창작집단 육성	108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문화상품 개발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지역별 문화콘텐츠상품 개발	109
		문화콘텐츠관리	지역소재 문화유산 연계 활용	고대사 문화유산 연계, 불교 문화유산 연계, 왕 조기록 문화유산 연계, 설화 문화유산 연계 등	109, 110
	공동 협력사업 발굴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창작소재 공모전 공동 시행	삼국유사 소재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도모	110, 111
		문화예술창작	삼국유사 소재 기반 실경뮤지컬 공동 제작	여러 지자체, 각종 축제 등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상설공연 실경뮤지컬 제작	111, 112

3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관련 페이지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전자지도 공동 제작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전자지도 제작	112, 113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VR/AR 콘텐츠 제작	삼국유사 관련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113
		문화콘텐츠관리	삼국유사 드론투어 콘텐츠 공동 개발	삼국유사지도, 드론을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 정보를 얻고 가상체험도 가능한 콘텐츠 개발	114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와 함께 하는 템플 스테이	삼국유사 관련 사찰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114, 115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와 만나는 21세기 판타지 박람회	삼국유사의 판타지적 콘텐츠를 발굴해 전시, 포럼, 영상상영 등 복합형 박람회 개최	116, 117
		관광콘텐츠관리	삼국유사 테마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의길(서동요, 거득공 이야기) - 구도의길(진표, 의상, 원효대사 이야기) - 호국의길(무열왕과 문무왕, 화랑 이야기) - 교류의길(연오랑 세오녀, 신무대왕 염장 궁파, 처용, 가락국기, 월광서학, 귀축제사 이야기) - 일연의길(보각국사 일연스님 행적 이야기) 	29~56

IV. 결론 및 기대효과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여건 분석
2. 기대효과

Ⅳ. 결론 및 기대효과

1.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여건 분석

- 삼국유사 관련 콘텐츠는 지역에서 문화 산업으로 육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발 가능성이 있음
- 콘텐츠 측면에서 부족한 지역 축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음
-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기존의 것을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경북이 주도하지만 관련 지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2. 기대효과

- 삼국유사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춘 新문화관광콘텐츠 개발
- 중원문화권 연계를 통한 허리경제권 문화산업 활성화
- 新도청시대 경북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